

CITY OF ANGEL

Born-Angel

엔젤 아빠, 엔시오 엄마
주안이는 모태엔젤



최고 경쟁률 36:1(상업용지) 1~5차 100% 완판 분양 경제백신, 펜타시티!

주거, 상업, 업무, 산업, 행정 인프라까지 갖춘
4차 산업혁명의 거점도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가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이끌어 갑니다.

【다음세대 희망백신】 바이오 첨단 IT관련 특화단지 조성
【대구경북 경제백신】 경상북도 동부청사 착공
【대한민국 미래백신】 지식산업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준공
【생활민족 가치백신】 공동주택 총 4,075세대 분양 임박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업무
용지

산업
용지

※ 본 제작물상의 CG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합니다.

[시행] (주)포항융합티앤아이 [자금관리] KYOBO 교보증권 KOREA trust true friend 한국투자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사업관리] DGFEZ 포항시청 경상북도

포항홍보관 분양문의

1522-0346 1522-3416

대구홍보관 분양문의

글로벌 뮤지컬 축제, DIMF



DIMF 뮤지컬스타

DIMF 뮤지컬아카데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브랜드



DIMF

T_DIMF사무국 053.622.1945 H_www.dimf.or.kr



엔젤은 살아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명저 《사피엔스》(김영사 펴냄)에서 ‘진화(進化)에는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장기(臟器)’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것이지요. ‘입(口)’의 경우에 처음에는 다세포 생명체가 영양소를 몸 안으로 섭취하기 위하여 생겼지만, 지금은 그것 말고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言)’이지요. 우리가 ‘입’으로 먹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엔젤클럽도 존재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초기에는 위기에 처한 ‘시민구단 대구FC’를 살려야 한다는 모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구사랑을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스토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출범할 때만 해도 ‘1, 2년 하다 말겠지’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어느덧 5년 후원은 물론 6년 엔젤까지 탄생하고 있습니다. 더 놀랄 만한 것은 ‘시민’으로서 시민구단 후원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던 ‘모태(母胎)엔젤’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축구장에 갔던 한 소년이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해 엔젤이 됐고, 대박 개장하는 날 엔젤의 축복 속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며, 대박의 정기반아 가진 아이를 ‘모태엔젤’로 가입시켰습니다.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은 바로 엔젤의 미래와도 같습니다.

지역 엘리트와 생활축구의 중심 대구광역시축구협회 회장단의 전원 가입소식도 엔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올해 초 대구축협회장으로 취임한 박철웅 회장이 지난 3월 ‘엔젤’에 가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회장단 전원과 협회 전무가 모두 엔젤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엔젤과 축구협회의 콜라보가 어떻게 진행될 지 벌써부터 기대가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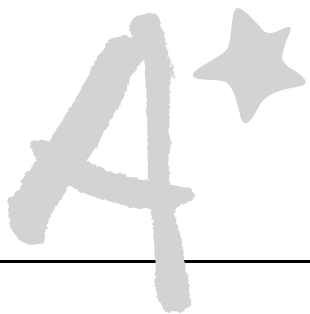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자발적인 엔젤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액 후원자인 엔시오(Ancio)가 엔젤이 되고, ‘엔젤’을 새해 목표로 세운, 청년은 바람대로 ‘엔젤’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엔젤은 결혼 후 ‘엔젤 가입한 것이 제일 잘했다’는 아내의 칭찬을 듣기도 했다니, 듣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엔젤은 생물生物!’ 살아 있는 이야기, 엔젤 매거진에 소중하게 담아

‘엔젤은 생물生物’입니다. 이제 ‘엔젤의 이야기’가 어디로, 또 어떻게 펼쳐질 지 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엔젤클럽 매거진 ‘City of Angel’에 담아 기록할 뿐입니다.

이번 호 역시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소복소복 담겼습니다. 엔젤! 존재 그 자체가 살아 있음을 이번 매거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매거진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CITY OF ANGEL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
2021 Vol.8



세계 최초일 것이다. 엔젤 아빠와 엔시오 엄마 사이에서 '모태엔젤'로 태어난 '주안'이. 수많은 엔젤의 축복 속에 태어난 '주안'이는 앞으로 엔젤들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나면서, 또 첫 돌과, 첫 경기장 나들이... 주안이의 하루하루가 바로 엔젤클럽의 미래, 대구축구의 미래다. 'City of Angel'이 머지 않은 것 같다.

계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발행일 | 2021년 9월 15일

발행기관 | (주)엔젤클럽

발행·편집인 | 이호경

편집장 | 김용하

편집위원 | 김중두, 강정영, 손지훈, 조은비

제작 | 멀티에드(대표 김정미)

포토그래퍼 | 대구FC, 하제연

디자이너 | 이지은

인쇄 | (주)케이비팩토리(대표 이분숙)

(주)엔젤클럽

420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대구)

전화 | 053-602-7307

팩스 | 053-602-7306

이메일 | daeguangel@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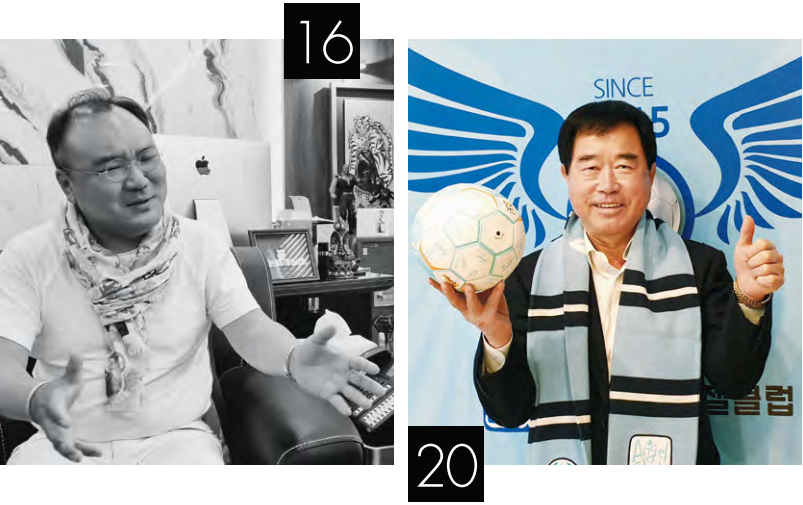
햇빛이 뽀뽀한 7월 막바지! 이원재 엔젤((주)핑거스냅 대표)과 우순월 엔시오 부부는 생후 50일 '주안'이를 꼬옥 안고, V스튜디오를 찾았다. 코로나로 인해 '뉴본(newborn)사진'을 제때에 찍지 못했지만, 주안이를 위해 꼭 기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빨리 축구천사가 된 주안이의 '엔젤가입기념사진'이다.

COLUMN ESSAY

4 엔젤은 살아 있다

COVER STORY

16 Born-Angel 엔젤로 태어나다
축구천사, 하늘에서 온 모태엔젤
Born-Angel



ANGEL WITH US

- 16 **다이아몬드 엔젤 列傳**
박정흠 (주)수성의숲 회장
- 가치를 개발하고, 판을 주도하는 승부사
- 20 **엔젤 초대석**
민통대구협의회장 도재영 엔젤자문위원
- 봉사과 나눔, 열정의 삶!
마음의 여백은 손주사랑으로 채워
- 24 **엔젤 포커스**
대구광역시축구협회 회장단 엔젤의 날개 달다!
- 28 **엔젤과의 언택트한 인터뷰**
현정규, 민준홍, 이태현 엔젤
이근호 선수(대구FC FW)
- 34 **엔젤 브리핑_엔젤의 언어**
'5년 엔젤' 'ACL 진출'
엔젤단톡방에 나오는 엔젤의 언어들
- 38 **엔젤 에세이**
밥심(心)이 천심(天心)
- 39 **Angel & Life**
송원배 엔젤, 시인 등단 등

SPECIAL ANGEL

- 43 **대구FC엔젤클럽의 뿌리_ 5년 엔젤**
우리 선수들 성장, 후원에 큰 보람
5년 엔젤 이구동성異口同聲

DAEGU FC REPORT

- 68 **대구FC 소식**
- 대구FC, 써드 유니폼 출시
- 현풍고,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
- 라마스 영입, 삼바 트리오 완성
- 대구FC, 수비수 이상기 영입
- 74 **엔젤의 전사들**

ANGEL DIARY

- 94 **엔젤 다이어리**
코로나 뚫고 엔젤가가 간다

- 105 **엔젤클럽 스폰서**
106 **다이아몬드 엔젤**
108 **엔젤 명단 | 엔시오 명단**

수줍은 고백, 모태엔젤의 시작!

2019년 3월 9일 DGB대구은행파크 개장경기

COVER STORY



엄마 뱃속에서 엔젤된 축구천사 '이주안'
6월 11일 건강하게 태어나

축구천사, 하늘에서 온 모태엔젤 Born-Angel

주안이는 태어나자마자 대구FC의 후원자가 됐다. 주안이는 엔젤, 그리고 대구축구의 미래다.

햇빛이 쨍쨍한 7월 막바지! 이원재 엔젤((주)핑거스냅 대표)과 우순월 엔시오 부부는 생후 50일 '주안'이를 꼬옥 안고, V스튜디오를 찾았다. 코로나로 인해 '뉴본(newborn)사진'을 제때에 찍지 못했지만, 주안이를 위해 꼭 기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빨리 축구천사가 된 주안이의 '엔젤가입기념사진'이다.

주안이가 엔젤에 가입한 것은 지난 3월, 호텔인터볼고 대구에서 열린 '대구FC엔젤클럽 2021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다. 놀랍게도 엄마 뱃속(임신 6개월)에서 모태(母胎)엔젤이 됐다. 응원도 물론 구단 발전을 위하여 후원도 함께 하는 '엔젤클럽의 특성상' 주안이의 사례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일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주인공이 된 주안이는 비록 엄마 뱃속이었지만, 많은 축복을 받았다. 태명은 '쨍쨍미'. 세상을 재미있게 살기를 바라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담겼다. 주안이를 대신해 회원증서를 받은 이원재 엔젤은 "2019년 엔젤에 가입한 후, 아내는 엔시오로 활동 중이고, 대박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쨍쨍미도 이번에 엔젤이 돼 100% 엔젤가족을 완성했다."며 기뻐했다.

그렇게 뱃속에서 엔젤이 된 쨍쨍미는 3개월이 지난 6월 11일 건강하게 태어났다. 엔젤로 이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사진 촬영 당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런 미소로 주안이를 내려 보던 우순월 엔시오는 "어제 밤에 잠도 잘 자고 오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방긋방긋 웃는 걸 보세요"라며 "주안이가 컨디션이 좋으니 오늘 촬영은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기본 촬영을 마친, 부부는 태극기가 선명한 대구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원정 유니폼(흰색)을 입었고, 주안이는 하늘색의 메인 유니폼을 입었다. 처음에는 주안이와 맞게 별도로 맞추려고 했으나, 엔젤이 지금 입은 유니폼이 '딱' 맞는 모습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성품을 그대로 입혔다. 막상 입은 모습을 보니 제법이다. 부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뱃속에서 엔젤이 된 모태엔젤 주안이가 아빠(이원재 엔젤), 엄마(우순월 엔시오)와 함께 엔젤가입을 기념하며 '엔젤사진(Born-Angel)'을 남겼다.

아빠와 손잡고 축구장 가던 이원재 엔젤, 이제 아이 손 잡고 대박으로

이원재 엔젤은 "어려서는 아빠의 손을 잡고 축구장에 가고, 커서는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가며, 그리고 아빠가 되어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축구장에 간다는 유럽 축구 팬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다"며 "아이가 생기면 꼭 실천하고 싶다."고 대를 잇는 엔젤의 스타트를 끊었다.

실제로 이원재 엔젤은 어린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축구장에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에는 프로팀이 창단되지 않아 평소에는 축구를 볼 수 없었다. 국가대표 경기라야 가능했다. 경기장은 현재 대박의 자리에 있었던 '대구시민운동장'. 시기도 분명히 기억날 정도로 아빠와의 추억은 생생하다.



결혼 후 우순월 엔시오는 남편 이원재 엔젤과 함께 대박을 찾으며, 축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아마도 199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틀란타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대구시민운동장에 갔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트랙이 있는 종합경기장이라 선수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TV로 축구 보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지 뭐니까! 하지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갔던 경기장의 분위기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주안이도 저처럼 이런 기억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원재 우순월 엔젤엔시오부부는 대박 도보 1분 거리에 집을 얻었다. 입주가 2년 후인 2023년인 만큼 그때는 세 식구가 함께 대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안이 역시 나중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축구장에 가게 된다면 3대가 함께 경기장을 찾게 돼 축구가족이야기는 대를 이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주안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엔젤스타(Angel-Star)’가 됐다. 엔젤들은 너 나 없이 주안이의 탄생을 환영하며 축복했다. 엔젤의 철학과 비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호경 회장은 “엔젤클럽 회장으로서 가장 보람있고 가슴 벅찬 순간”이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뱃속에서 엔젤이 된 주안이는 말 그대로 ‘엔젤’, 축구천사다. 주안이의 엔젤가입은 엔젤의 미래에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팬 신선한 충격, 감동! “250만 대구시민이 네 이름 속삭였다”

인터넷 종합커뮤니티 FM코리아에도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다.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신선한 충격과 큰 감동을 받았다. 대구축구는 역사는 짧지만
확차고 알찬 알짜배기 팬들이 많은 것 같다... 큰 영감을 주네..”(따뜻하게데파이)

“와... 아기회원도 아닌 태아회원, 초근본 로컬 선수탄생의 서막”(훈련코치)

“짬뽕아 너가 태어날 때 250만 대구 시민들이 네 이름을 속삭였단다.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
길 바란다”(조광래유치원)

“이런게 다 쌓이고 쌓여서 스토리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하루 아침에 역사가 만들어지는게
아니니까요. 멋있습니당.”(포항스틸러스)

이런 축복 속에 주안이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 ‘주안’이의 하루하루는 엔젤들 속에서
커 나간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주안이는 엔젤
삼촌, 이모 속에서 사랑 속에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다.

뱃속부터 힘찬 발길질, 본인 원하면 축구선수로 커가길

우순월 엔시오는 본인만 원한다면 ‘축구’선수가 됐으면 바람을 갖고
있다. 이원재 엔젤을 만나기 전에는 축구를 전혀 몰랐던 그녀. 하지만
대박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축구장을 찾으면서 이제는 ‘축구마니아’가
됐다. 주안이를 가졌을 때도 축구를 끊지 못해, 경기를 모두 찾아 볼
정도였다. 물론 나중에는 너무 조마조마해 혹시 아기에게 좋지 않을
까 해서 당분간 축구를 끊었다고 한다.

“‘태몽’으로 파도치는 꿈을 꿔요. 주위에서 아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로 주안이의 발길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뜨거운 대박분위기와 축구
의 기운을 받아서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원한다
면 축구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
는 공공재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지, 몸
소 체험했다. 그만큼 주안이가 좋은 선수로 자라는 것도 엔젤과 지역
축구 스토리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주안이는 ‘엔젤’ 나아가 ‘대구축구사랑’의
희망이다. 주안이가 엔젤로 성장하고, 또 그 아이가 엔젤이 될 때면, 대구는 그야말로 엔젤의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원재 엔젤은 엔젤클럽회원으로 역할이 많다. 엔젤클럽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풋
살연맹 부회장이기도 하다. 엔젤클럽 소모임인 ‘엔트리’ 소속으로 많은 엔젤과 소통을 이어가
고 있다.⁴⁾



뱃속에 있는 주안이를 대신해 엔젤회원증서를 받고 기뻐하는 이원재 엔젤
(2021. 3. 3. 대구FC엔젤클럽 정기총회)

가슴이! 가슴이! 터질 듯

정치인 선수 6년만에 K리그 데뷔골 8. 28. (VS 성남FC)

ANGEL WITH US



축구천사로 지역 사랑 실천

가치를 개발하고, 판을 주도하는 승부사

박정흠 다이아몬드 엔젤
(주)수성의숲 회장



소 안에 범 있다!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이의 눈, 소의 걸음) 박정흠 다이아몬드 엔젤

부동산 디벨로퍼이자 기업M&A 전문가인 박정흠 다이아몬드 엔젤((주)수성의숲 회장·이하 박회장)은 선이 굵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 느낌을 실감한다. 박회장의 사무실에는 입구부터 힘센 근육이 살아 꿈틀대는 두 마리 '소(牛·조각품)'가 지키고 있다. 제주도에서 첫눈에 꽂혀, 웅바디(Wing Body) 트럭으로 공수한 귀한 작품이다. 뒷발굽은 땅을 굳건히 지탱하고, 앞발굽은 앞으로 내딛고 있다. 무게 중심은 아래에 있다. 고개를 낮게 숙이고, 숫구치기 위해 힘을 모은 자세다. 신호만 떨어지면, 곧장 앞으로 돌진할 태세. 하지만, 그 가운데 박회장이 앉으니 금방 소들의 힘센 기운은 안으로 응집된다. 마치 힘센 두 마리 소의 기운을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을 앞둔 것처럼, 박회장은 고요하고, 두 마리 소는 때를 기다린다.

사무실 안은 더 눈에 띄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다. 수많은 달마도와 호랑이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박회장은 한국적 색채가 가득한 김호연 화백의 그림을 좋아한다. 김화백은 우리 전통의 단청과 같은 원색으로 강렬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진 화가다. 소위 '센' 그림이다. 달마가 너무 많으면 '기운이 너무 세다?'는 속설도 있다지만, 박회장은 그럴수록 더 좋단다. "제가 달마를 좀 닮지 않았나요?"라며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박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성의숲' 프로젝트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의 눈, 소의 걸음

박회장은 소피다. 젊은 시절 그는 저 힘센 두 마리 소마냥 거침 없었다. 20대 후반 서울에서 사업을 일으켜, 40대에는 100대 재벌이 되는 것을 꿈꿨다. 처음에 건축자재 분야에서 시작한 그는 주위의 추천으로 우연히 '디벨로퍼'의 길로 들어섰고, 이를 발판 삼아, 기업을 인수 합병하며 몸집을 불려갔다. 종합건설사를 인수한 뒤 주식이 솟구치면서 그는 한때 상장사 7개, 비상장사 10여 개를 거느릴 정도로 사세를 확장했다. 하루하루가 역동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외형 위주의 사업 확장과 사람 믿기 좋아하는 그의 성품은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부지런히 벌였지만, 지키지 못했다. 결국 4년 전, 그는 고향 대구로 돌아왔다.

손에 쥔 건 없었지만, '마음 먹은 것은 해내고 만다'는 정신을 밑천으로 대구에서 다시 뛰었다. 상품가치가 떨어진 물건(부동산)들은 그의 손을 거치면서 제대로 가치를 드러냈다. 가치를 알아보는 그의 안목은 깊은 산 높은 바위에서 멀리 내다보는 호랑이의 '눈'처럼 예리했다. 거기다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한 그는 이제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소의 우직한 걸음처럼 내실 있게 나아가는 지혜까지 얻었다. 바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행보다. “저는 소피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학하신다는 분이 우연히 저를 보시더니 ‘소가 아니고, 호랑이야! 범이 들어앉아 있어’라고 하시더군요. 허허 참”

이번에 박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성의숲' 프로젝트도 그렇다. 범의 눈으로 사업부지를 살폈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사업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사업부지가 있는 파동은 그동안 중소형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며, 일급지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박회장은 파동이 최근 변해가는 주거문화 트렌드에 최적의 지역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며,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느냐'를 기준으로 집을 본 것이다.

“어떤 구조로 집을 짓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일상을 보내고 싶은 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에서의 일상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레저'입니다. 종일 직장에서 일했으면, 집에서는 누려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나만의 리조트에 놀러 오는 길이라면 얼마나 설렐겠습니까? 파동 우리 현장은 일상이 레저가 되는 대구 첫 단지가 될 것입니다.”

수성의숲 KCC스위첸으로 대구 첫 리조트 라이프 선보일 것

이런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성구 파동 '수성의숲 KCC스위첸'은 총 755세대 대단지, 전용면적 75㎡~146㎡ 중대형 구성에 19타입의 다양한 평면으로 지어진다. 특히, 파동이 자랑하는 주변 자연의 바람과 향기를 불러들일 테라스를 강조했으며 복층 세대 도입, 전 세대 4-Bay, 현관 전실 세대전용 창고 등을 비롯해 시선을 끄는 차별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단지 조경에도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인근 수성못, 범니산과 연계된 리조트 가든을 조성한다.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한 워터가든, 유럽 6개국의 정원을 도입한 테마가든, 걷는 정원과 보는 정원의 요묘한 앙상블 등 천편일률적인 중앙공원 및 구색 맞추기 식재와는 결을 달리하는 가드닝이다. 커뮤니티 구성에서도 필수적인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놀이터, 맘스레이션 등을 수렴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리조트 카페를 추가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리조트를 캔버스 삼아 각자 취향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그려가는 모양새다. 만촌동 수성대학교 건너편에 준비 중인 (주)수성의숲 갤러리 역시 파동은 물론 향후 사업까지 내다본 포석이다. 규모, 접근 용이성, 주차, 고객응대, 리조트라이프의 컨셉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공간구성 등 모든 면에서 최상급으로 준비하여 집을 구매하는 전 과정이 즐거운 이벤트가 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물론 대구시민에겐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고 즐길 줄 아는 '엔젤의 가치' 높이 평가

대구FC엔젤클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서도 박 회장의 스타일이 묻어난다. 박회장은 엔젤클럽의 가치를 높이 샀다. 실제로 박회장은 엔젤이 되기 전에 DGB대구은행파크에 갔다가, 엔젤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자발적인 시민후원단체로, 대구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는 점도 한몫 했다. “기업경영이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계속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박 회장의 생각은 축구에 관한 대구FC엔젤클럽 이념의 기업 버전인 셈이다.⁴⁾

자랑스러운 시민

봉사와 나눔, 열정의 삶!
마음의 여백은 손주사랑으로 채워



민통대구협의회회장 도재영 엔젤자문위원
(주)웅진기업 대표

도재영 엔젤자문위원	• 국제로타리 3700지구 천마로타리 회장 역임	• 現 민족통일 대구광역시협의회 회장
	• 국제로타리 3700지구 지역부총재 역임	• (주)웅진기업 대표이사
	• 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보좌역(現 지역대표) 역임	
	• 영남대학교 AMP 총동창회장 역임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제10대 회장 역임	



여러 단체장으로 그리고 치열한 기업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는 어쩔 수 없는 손주 바보다.(2021. 8. 1. 대파에서 사위, 손자와 함께)

8월 초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에 도재영 엔젤자문위원(민족통일대구광역시협의회회장·(주)웅진기업 대표)이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파)을 찾았다. 뒤에는 아빠사자를 따라오는 어린 사자들처럼, 손자들을 줄줄이 달았다. 라이트가 켜진 대파 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한 도회장과 사위, 그리고 손자들의 모습은 축구가 왜 위대한 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렇게 3대가 축구로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여러 단체장으로 그리고 치열한 기업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는 어쩔 수 없는 손주 바보다. 손자손녀 이야기만 나오면 도회장의 눈빛에 사랑이 가득했다. 스마트폰에도 손주들의 사진이 넘쳐났다. 아들 내외와 함께 월악산 정상에 오른 어린 손주들이 대견했고, 쌍둥이 외손주들의 재능에 할아버지 미소를 지었다. ‘공’으로 하는 것은 뭐든 잘하는 외손자는 제5회 국토청중앙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3위에 올랐다. 또 다른 쌍둥이 손녀는 틈만 나면 책을 읽는다. 지난해 열린 대통령상타기 전국백일장 대회에서는 본선에 올랐다. 행복이 따로 있겠는가. 아이들이 잘 자라고 무탈한 것. 그것이 행복이다.

‘마음의 여백, 욕심 없는 행복으로 충전해야’

모처럼 경기장을 찾은 도회장은 일흔을 넘긴 나이이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비결이 뭘까? 간단했다. ‘궁정적으로 산다’고 했다. 70년 인생에 어찌 고달픈 때가 없었겠는가? 하지만 도회장은 좋을 때만 즐긴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즐겼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풀 수 있다고 한다. 문득, 도회장은 한때 화제가 됐던 ‘미스터 트롯’의 막내동이 정동원의 노래 ‘여백’을 되뇌었다.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에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에 흔적/ (중략)/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 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도회장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헛된 욕심으로 마음에 여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헛된 욕심은 마음에 주름을 만든다는 것. 도회장은 그렇게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왔다. 그래서인가! 도회장의 얼굴은 큰 주름 없이, 건강해 보였다.

고난은 행복의 또 다른 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겨야

도회장은 40대 초반에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창업했다. 안정된 공직생활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 결심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끼’가 있어요. 그 ‘끼’대로 살면 됩니다. 공직생활이 맞으면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고, 자영업을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장사를,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사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적정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끼’를 찾아 세상으로 나온 그는 평소 그의 철학처럼 앞만 보고 성실하게 살았다. ‘고비가 없었나?’는 질문에 ‘언제나 그 고비를 즐겼다’고 ‘쿨’하게 이야기한다.

“고난은 곧 행복의 다른 말입니다. 힘들다고 생각지 말고 최선을 다해 부딪치면 해결된답니다. 저는 공직자 생활을 할 때 하루를 25시간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사업을 하는 동안, 내 머리에 ‘힘들었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부딪치면 다 괜찮았답니다.”

- 1 대구스타디움을 홈 구장으로 쓰던 시절, 전 가족이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
- 2 도재영 회장은 ‘고난은 곧 행복의 다른 말’이라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왔다.



민통대구협의회장, 전문건설협회장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

이같은 도회장의 삶에 대한 자세는 각종 사회단체장을 하면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단체를 이끌 때면 언제나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지회장을 맡을 때였다. 그는 이 기간 동안 1200여 개 회원사 상호간 화합 도모와 기술 능력 전수 및 업무교류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회원사 전체의 기술능력 배양에 공헌했으며, 이는 곧 지역 건설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 영세업체를 직접 찾아가 건설공법을 공유하는 등 동종 업체끼리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왔으며, 열악한 건설경기로 부득이 도산하는 업체를 후원해 업주를 위로하고 재기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도 했다.

이런 그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일에도 쓰였다. 지난 2005년 민통대구시협의회에 부회장으로 입회한 그는 지금은 회장으로 민간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대구에서 개최된 민통창설 제37주년 기념 전국대회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회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즐겁게 봉사하자’는 신념을 갖고 있다. 형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능력껏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기회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다. 기업인, 또는 사회단체 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시민, 국민으로서, 능력껏 마음이 가는 대로 실천했다. 그렇게 풀어 헤치니 수많은 봉사활동이 있었다. 이런 활동으로 그는 ‘제43회 대구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사회봉사부문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 BRAVO 도재영 엔젤!

삶의 지혜가 따로 없었다.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고,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며 즐기는 마음. 성실함과 뜻있는 봉사, 그리고 일상에서 찾는 건강이 바로 행복 비결이었다. 그 중에 대구FC엔젤 활동도 포함될 것이다.

오늘 도회장은 자신의 인생과 마음을 무엇으로 충전시킬까? 아직은 알 수 없다. 도회장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이니까. BRAVO 도재영 엔젤! **4***



대구광역시축구협회 회장단 엔젤의 날개 달다!

박철웅 회장 비롯 회장단 전원 엔젤가입
지역 축구발전을 위한 열정에 공감, 협회 전무까지 축구천사

대구축구의 중심 대구광역시축구협회(회장 박철웅, 이하 대구시축구협회) 회장단 전원이 엔젤의 푸른 날개를 달았다. 지난 8월 20일(금)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 엔젤룸에서 김지만, 이경호 부회장의 대구FC엔젤클럽 가입식이 열렸다. 이경호 부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날 가입식으로 박철웅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 전원이 대구FC엔젤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김지만 부회장은 이날 가입식에서 “대구축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엔젤클럽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대구축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축구협회의 엔젤 가입 신호탄은 박철웅 회장이 쏘아 올렸다. 지난 2월 대구시축구협회 선거를



대구광역시축구협회 임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구FC 엔젤가입을 기념하는 포즈를 취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통해 제12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회장은 ‘행동하고 솔선수범하는 회장’이라는 공약에 맞게, 취임 한 달 후인 지난 3월 엔젤클럽에 가입하며, 솔선수범 했다. 이날 박회장은 “축구사랑으로 똘똘뭉친 엔젤클럽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대구FC와 대구FC엔젤클럽과 함께 대구축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특히 “축구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대구축구의 수장으로서 축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에 감동했다”며 “지역 축구인들이 축구를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엔젤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 엔젤들을 감동케 했다.

박회장을 시작으로 대구시축구협회의 엔젤가입이 이어졌다. 박동선, 서태호 부회장에 이어 김지만, 이경호 부회장이 가입했고, 김연수 협회 전무도 엔젤의 날개를 달았다. 박동선 부회장은 지난 8월 1일 대구FC 홈경기가 열린 대팍에서 가입식을 마치고 “엔젤클럽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시민구단 후원단체”라며 “요즘 대구FC가 과거와 달리 선전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엔젤클럽의 뜨거운 응원과 후원도 한 몫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엔젤가입식을 가졌던 서태호 부회장 역시 “엔젤에 대해 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참 괜찮은 활동 같았고, 결국 지역 축구를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동참키로 했다.”고 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즉석으로 엔젤에 가입한 김연수 전무는 “축구협회의 본연의 임무는 지역의 학원, 클럽, 동호인 축구 발전이며, 엔젤클럽 역시 후원과 응원을 통해 대구FC를 명문시민구단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대구축구발전’이라는 목표가 같은 만큼, 엔젤활동을 통해 대구FC가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라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전무는 “대구FC 역시 시민구단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구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만 된다면, 지역의 어린선수들도 대구FC에서 활약하는 프로선수들을 보며 꿈을 키우고, 또 나중에 우리지역의 프랜차이즈 선수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회장단의 연이은 엔젤가입에 대해 박회장은 “부회장님들과 전무님 등 회장단 전원이 엔젤에 가입한 것에 대해 회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구광역시축구협회



박철웅 회장



박동선 부회장



전용철 부회장



김지만 부회장



정소영 부회장



서태호 부회장



김연수 전무



박명규 감사



조병래 이사



지난 8월 20일 대박에서 김지만 부회장, 이경호 부회장(불참)의 가입으로 회장단 전원이 엔젤이 되었다.

엔젤회원, 축구협회 임원으로 선임, 함께 축구발전 노력키로

한편, 기존 전용철 엔젤이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정소영 엔젤클럽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이 협회 부회장, 박명규 엔젤이 감사, 조병래 엔젤이 이사로 각각 선임되면서 엔젤클럽 회원 역시 축구협회 일원으로 대구축구발전에 기여하게 됐다.

박명규 엔젤은 “대구달서구축구협회장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던 중, 정소영 부회장으로부터 엔젤 이야기를 듣고 가입하게 됐다”며 “가입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특히, 아내와 함께 경기장을 가면서 아내가 오히려 축구를 더 좋아하고 이해하게 됐다. ‘엔젤’ 그리고 ‘축구’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나”고 엔젤가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축구협회 회장단들의 엔젤 가입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축구인들 역시 엔젤클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엔젤클럽도 축구인과의 교류를 통해 단체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연수 전무는 엔젤가입 후 엔젤클럽 축구팀인 엔젤FC(단장 조병래) 축구경기에 초청을 받아, 엔젤들과 함께 직접 공을 차면서 ‘축구’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기도 했다.

이번 축구협회 회장단의 엔젤가입에 가교 역할을 한 정소영 엔젤클럽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은 “국내 많은 스포츠 중에 ‘시민프로구단’이 있는 종목이 바로 ‘축구’라며 “협회와 엔젤클럽, 그리고 구단이 서로 힘을 합치면 대구가 진정한 ‘축구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20일 신입엔젤가입식에 참석한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대영에코건설(주) 대표)도 “대구시축구협회의 박철웅 회장님과 회장단의 엔젤 가입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는 엔젤클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뢰 받는 협회 위해 솔선수범!

● 박철웅 대구광역시축구협회장의 솔선수범 리더십
지역 축구 현장 직접 챙기고 소통, 엔젤클럽 가입도 그 일환



박철웅 대구광역시축구협회장

‘솔선수범하는 회장, 변화하고 신뢰 받는 협회!’

지난 2월 대구광역시축구협회장으로 당선된 박철웅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협회 김연수 전무는 “회장님은 취임하면서 ‘행동하고 솔선수범하는 회장’, ‘차별 없는 공정으로 변화하고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며 “엔젤 가입 역시 그 공약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회장은 엔젤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비 축구인들이 지역 축구를 살리기 위하여 이처럼 노력하는데 축구인이 가만있을 수 없다’며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회장은 요즘 말로 ‘프랜차이즈 스타’다. 협성고 출신으로, 지난 1977년 5월 제19회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국가 대표로 뛰었으며, 영남대 재학시절인 1980년 제10회 대통령 컵국제축구대회에 국가대표(충무) 소속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프로에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포항제철프로축구단에서 활약한 국내 프로축구 1세대다. 은퇴 후에는 협성고 축구감독, 축구협회 전무이사,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그 후에도 한국OB축구 대구지회장으로 두터운 축구 인맥을 형성하는 등 지역 축구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이번에 대구축구계의 수장인 협회 회장으로 부임하면서도 박회장은 특유의 현장 중심의 소통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협회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올해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소영 엔젤클럽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은 “학원 축구는 물론, 생활축구 현장까지

일일이 다니며 소통하는 박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축구동호인으로서 많은 것을 느낀다. 대부분의 축구인들도 정말 반가워 하고,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지역 축구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게 되며, 결국 신뢰 받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회장은 과거보다 대구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한국형 축구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DGB대구은행파크와 시민구단 대구FC의 선전 등 최근 들어 대구축구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협회 역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협회를 이끌어 가는 박회장은 “지나간 과거보다는 우리 대구 축구의 미래를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해왔던 좋은 부분은 더 발전시키는 한편 시대에 맞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대구축구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박회장에게 엔젤 역시, 대구축구의 한 ‘현장’이다. 엔젤가입의 배경도 여기에 있다.

대구축구계의 전반을 살펴야 하는 박회장은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을 모토로 새로운 후원문화를 만들어가는 엔젤클럽 역시 중요한 ‘현장’”이라며 “앞으로 엔젤은 물론 대구FC 구단과도 소통하면서 진정한 대구축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엔젤과의 언택트한 인터뷰

태양의 아들, 이근호

대구에 다시 뜨다

현정규, 민춘홍, 이태현 엔젤은 엔젤 가입 전에는 한국청년지도자연협회 소속이었다. 세 명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관심이 많았고, 더군다나 축구도 좋아하니 '엔젤'이 제격이었다. 그렇게 엔젤에 가입, 요즘은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 아무리 못 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봤다는 이 '한청 삼총사'가 요즘은 코로나로 얼굴 보기가 힘들다. 대신, 전화로 축구이야기, 엔젤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태양의 아들로 대구FC의 레전드가 된 이근호 선수가 요즘 다시 대구로 돌아와, 할 이야기들이 많다. 내친김에 '엔젤과의 언택트한 인터뷰'를 신청해 아쉬움을 달랬다. 지난날 이근호 선수의 활약을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현정규 엔젤은 "당시 화끈했던 대구FC가 떠오릅니다. 이근호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섭섭했는데 이렇게 돌아오니 꿈만 같다"고 반가워 했다. 민춘홍 엔젤 역시 "이제는 고참으로 돌아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근호 선수를 보면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고, 이태현 엔젤은 "이근호 선수를 비롯해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다른 우정의 세 엔젤이 이근호 선수와 함께 한 언택트 인터뷰를 정리해 봤다.



현정규 엔젤 (주)영진기공 대표 | 민춘홍 엔젤 (주)한국파이프 대표 | 이태현 엔젤(법무법인 마음 변호사) | 이근호 선수(대구FC FW)



FW 22 이근호

생년월일 1985. 4. 11.
신체 176cm, 74kg
전 소속 울산현대
출신교 부평고
K리그 통산기록 318경기 75득점 52도움



대구FC, 그리고 하대성 선수와의 추억(출처 : 대구FC 홈페이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는 엔젤클럽

대구FC엔젤클럽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시작됐는 지도 잘 알고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은 물론 후원도 하는 특별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근호 선수를 기억하는 엔젤들이 많습니다.

저를 기억하신다면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웃음) 벌써 13년~14년 전에 대구FC에서의 모습을 기억해주는 것 같은데, 아직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대구FC에 다시 오면서 축하의 인사와 반갑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억 속의 이근호 선수

일부 엔젤 중에는 당시 이근호 선수가 표지모델로 나오는 <골(goal)>(사진)이라는 매거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당시 대구에서의 생활이 어떠셨어요.

골 매거진 기억합니다. 본가에도 잡지가 아직 있을 거예요. 촬영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표지 사진이 지금 보기엔 민망해요. (웃음)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 전까지 프로선수로서 제대로 활약을 못 하다가 대구에 와서 좋은 기회를 받아 활약을 했었지요. 축구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면에서도 즐거운 기억이 많습니다. 맛집도 많이 기억나고, 한창 젊을 때라 동성로에 대한 추억도 있어요. 축구와 생활적인 면 둘 다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추억여행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이근호 선수가 표지모델로 나온 매거진 <골(goal)>



2018FA컵 축승회에서 조광래 대표와 함께



엔젤기발과 현정규 엔젤



모금운동 중인 민춘홍 엔젤



리카와 내강 놀자(이태현 엔젤)

2007년 울산과의 경기에서 수비 6명을 제치고 골을 터뜨린 기억이 납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은?

울산과의 경기! 잊지 못합니다.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많은 수비를 제치고 골을 넣었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쳤던 선수가 상원이 형(장상원 선수)인데 그 다음 해에 대구로 와서 룸메이트가 됐어요. 기억에 남는 골은 이기지는 못했지만 전남이랑 했을 때 넣었던 데뷔 골이에요. 비록 2대2로 비겼지만 그 골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

당시 이근호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었지요. 바로 하대성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우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하대성 선수의 근황은 어떤가요?

대성이가 올해도 대박에 왔다 갔어요. 식당 이모도 만나러 올 정도지요. 대성이랑은 여기에서 정말 잘 맞았고 활약도 좋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면서 재밌게 잘 지냈던 생각이 지금도 떠올라요. 지금 대성이는 용인축구센터에서 중학교 코치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주 보고 연락도 계속하고 있어요. 대성 이도 대구에 대한 기억이 참 좋습니다. 서로 대구에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대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구에서 꿈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2021 대박의 이근호 선수

13년 만에 다시 찾은 대구는 어떤가요?

솔직히 차이는 많아요. 축구로 얘기하면 이기는 게 쉬운 팀은 아니었습니다. 골을 많이 먹고 시작했던 팀이니까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인프라 면에서도 지금은 좋은 클럽하우스를 갖고 있지만 그때는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했었어요. 그 외에도 구단 버스 등 여러가지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ACL을 나가는 팀이지만 그때는 ACL을 바라보기도 힘들었던 팀이었죠. 대박의 경우 제가 뛰어난 K리그 운동장 중에 가장 좋아요. 발을 구를 수 있는 쿵쿵글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상대 팀으로 대박에 왔을 때 분위기에 압도 당했었죠. 축구도 그렇고 외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발전했습니다. 모든 시민 구단이 지향할 만한 팀이 된 것 같아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난 3월 광주와의 경기에서 90미터 폭풍 질주 수비로 한 골을 막아내며,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선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다음이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후반에 광주전에 교체 투입됐어요. 그래서 힘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축구를 해왔어요.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팀내 고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아무래도 많은 것을 챙겨야 하는 것 같아요. 행동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항상 한번 더 생각하고 후배들을 많이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수들한테 조금 더 경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한번이라도 장난을 더 치려고 해요. 너무 무겁게만 다가가면 선수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가벼운 말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근호 선수가 있을 당시 공격축구로 대구가 유명했습니다. 현재 대구팀과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골을 정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먹혔죠. 당시 백민철 코치님께서 최다 실점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웃음) 막은 것도 많고 그만큼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때는 승강제가 없어서 더욱 화끈한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구FC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끈끈한 경기력, 원팀입니다. 다 같이 수비하고 빠른 역습으로 골을 넣지요. 지난 몇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징야, 에드가, 츠바사, 라마스 외국인 선수들의 조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대구는?

이근호 선수는 ACL우승 경험이 있지요.

우승 경험자로서 ACL 경기의 어려움과 또 대구의 전망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다행인 건 조별예선을 하고 오면서 선수들이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ACL은 부담을 가진다기보다 즐길 수 있는 국제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장하기보다는 즐기면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선보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K리그와 ACL 심판 성향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관대하지요. 그래서 끝까지 하려고 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팀들은 우리말을 못 알아 듣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 경험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시즌 후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FC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다가 후반기 처음에는 좋지 않았습니. 다행히 연패를 끊었어요. 선수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축구 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었죠. 극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부상 선수가 합류하고, 컨디션이 좀 더 회복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8년 이근호 선수 캐리커처와 사인

대구 팬 항상
감사드리고,
팬들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소 3위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그 위 두 팀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든지 목표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대구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대구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큰 역할을 해준 구단이 대구FC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팀이 마지막 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올 시즌 대구FC에서 뛴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엔젤들에게 마음을 담아 사인하는 이근호 선수

엔젤, 그리고 대구시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응원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적응이 안됐습니다. 대박에서 많은 팬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대구로 다시 와서 선수들과 전체 회식을 한번 도 못했다는 거예요. (웃음) 사실 힘들 때는 회식도 중요한 방법이지요.

코로나로 힘든 분들에게 대구FC가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진 힘들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축구를 통해서 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 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인 만큼 힘들지만 끝까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



‘5년 엔젤’ ‘ACL 진출’

시대의 흐름, 대구FC의 선전으로 ‘엔젤의 언어’가 바뀐다.
엔젤단톡방에 나오는 엔젤의 언어들.

엔젤단톡방은 쉼 없이 돌아간다. 벌써 7년째다. 그 기간동안 수많은 이야기들과 ‘말’들이 쏟아졌다. 초기만하더라도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와 같은 엔젤의 슬로건과 ‘가입하다’ 이런 말들이 자주 쓰였으나, 최근에는 ‘5년 엔젤’ ‘ACL’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다. 엔젤의 역사, 그리고 그와 함께 발전하는 대구FC에 따라 쓰이는 ‘말’들도 바뀌고 있다. 엔젤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의 잔치’ 중에서 10가지를 추려 정리해봤다.4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

가장 많았던 문장은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이다. 엔젤클럽의 공식 구호인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하다.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이라는 엔젤의 정신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한 만큼, 이 문장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경기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엔젤들은 대부분 바쁘다. 사업도 사업이려니와 지역 봉사활동, 그리고 대외활동이 많다. 대구FC경기를 보기 위하여 DGB대구은행파크(대박)로 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언제나 ‘경기장에 가지는 못하지만’이라며 미안해 한다. 뒤에 나오는 말은 자연스럽게 ‘마음만은 응원한다’ 또는 ‘뒤에서 엔젤의 의무를 다하겠다’ 등이다. 말만 들어도 고맙다. 미안할 이유가 없다. 바쁘신데도 엔젤의 의무를 다하는 시티즌 오블리주에 박수를 보낼 뿐이다.



5년 엔젤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엔젤의 역사를 알리는 말이기도 하다. 이 ‘5년’은 100년을 품은 숫자다. 출발 초기만하더라도 ‘1, 2년 하다 말겠지’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다. 실제로 타지역에서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5년’이라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제 해마다 5년 엔젤이 쏟아지고 있다. 6년 엔젤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10년, 언젠가는 100년 엔젤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소리소문없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언성 히어로(unsung hero)’ 아니겠는가. 봉사활동과 후원에 익숙한 엔젤들은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엔젤클럽매거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선한 기운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소명이다. ‘소리소문 있게’ 하는 것. 그러니 앞으로도 취재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구한다.

흔쾌히 엔젤하다

운동장에서
뵙겠습니다

릴레이

‘축구는 대구...’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다. 엔젤 초기에 무슨 다단계(?) 조직 같다는 오해를 듣기도 했던 엔젤의 후원 릴레이는 이제 지역 사랑의 실천 ‘공식’이 되어 버렸다. 지금도 엔젤의 릴레이는 이어지고 있다. 어디 릴레이 하는 것이 ‘후원’뿐이겠는가! 사랑도 릴레이하고 행복, 그리고 열정도 릴레이 한다.



운동장에서 뵙겠습니다

‘경기장에 가지는 못하지만’과 유사하지만, 그래도 소개한다. 얼마전 대구시내 대구백화점의 영업중단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한 때 그랬다. ‘대백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다 보면 대백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만난다. 운동장도 마찬가지다. 대백에서는 경기도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난다. 코로나로 인해 이 말은 참 그리운 것이 됐다. 마음 편하게 ‘운동장에서 보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의무

통상적으로 단독방에서는 ‘엔젤의 의무를 다하다’라고 쓰인다. 국어사전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당연히 ‘엔젤의 의무’라고 하면 ‘엔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엔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후원금, 축구응원 이런 것들인가? 엔젤은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분들이다. 후원금을 내고, 축구관람을 하고 대구FC를 응원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엔젤의 의무는 대구를, 이웃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ACL

AFC 챔피언스리그(AFC Champions League)의 약자다. 2019년부터 자주 쓰이던 말이다. 이런 알파벳을 쓰게 될 줄 몰랐다. 언제나 하위그룹을 전전하던 대구FC, 한때는 2부리그에 떨어졌으니 그럴 만도 한다. 그런데 대구가 FA컵에 우승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서 자주 쓰게 됐다. 2019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진출했다. 이번에는 16강을 진출했다. 앞으로 엔젤들이 자주 써야 할 단어가 될 것 같다.

※AFC : The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승선하다

언젠가부터 엔젤클럽이 ‘배’가 됐다. 목적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곳은 바로 ‘엔젤의 도시(City of Angel)’. 이 모든 것이 대구사랑의 메타포다. 어쩌면 엔젤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은유일 것이다. 그래서 엔젤들은 엔젤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엔젤호에 승선하다’고 표현한다. 같은 배를 타는 사람은 동료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어려움도, 위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승선’이란 말은 가볍지 않다. 언젠가는 대구시민들 모두가 엔젤호에 타기를 희망해 본다.

흔쾌히

국어사전에 ‘흔쾌히’는 기쁘고 유쾌하게다. 한자어로도 기뻐할 흔(欣)에 기뻐할 쾌(快)다.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거침이 없다. 예제로 ‘흔쾌히 승낙하다’ 이렇게 쓰인다. ‘흔쾌히 거절하다’ ‘흔쾌히 불평하다’ 이렇게는 쓰이지 않는다. 흔쾌히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품성이 느껴진다.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다. 엔젤이 그렇다. 엔젤가입하실 때 말씀이 그렇다. ‘흔쾌히 엔젤하다’. 아주 어울린다.

밥심(心)이 천심(天心)

우리는 종종 ‘밥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먹자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가끔 ‘혹’ 하고 들어올 때가 있지요. 실제로 ‘밥’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함민복의 ‘눈물은 왜 짠가?’의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앞에서 낮아지기 마련이고, 밥 앞에서 생각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명진의 시詩 ‘잘 먹은 밥’ 역시 오늘의 밥 한끼가 얼마나 참된 지 느끼게 해줍니다.

밥 먹다가 / 문득 보았습니다 / 한쪽에서 냄비 뚜껑이 / 나를 바라봐 주고 있었습니다 // 가시나 껌질, 흘린 밥알을 받아 주고도 있었습니다 // 뒤늦게나마 / 내게 그런 사람이 있음을 떠올렸으니 / 내가 그의 /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니 // 오늘의 밥 한 끼는 / 참 됩니다

수필이나 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밥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최근 제 주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너 나 없이 포장과 배달 음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소개할 이 엔젤 역시 초밥도시락 세트를 먹다가, 내용이 알차고 푸짐하자 문득 대구FC 선수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당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ACL(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대구FC 선수들이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막 귀국한 때였습니다.

마침 이 엔젤은 우연히 선수들이 클럽하우스에 격리된 채, 벌써 열흘째 하루 세 끼를 도시락으로 밥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고 있는 초밥세트가 푸짐하자, 그렇게 선수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혈기 왕성하고 먹성 좋은 선수들에게 특식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중복과 겹쳐졌지 뭐니까. 먹고 있던 푸짐한 활어회 초밥세트가 제격이었습니다. 구단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특별 주문해서 선수단에게 배달하게 됐지요. 물론 코로나19 생활수칙에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말입니다.”

멀리 해외에서 맘을 홀리고, 귀국 후 숙소의 방에서 격리된 선수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던 엔젤. 도시락이나마 제대로 마련해 한 끼 줄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털 수 있었다는 엔젤. 그런 그에게 그날 오후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주장인 김진혁 선수였습니다.

“갑갑한 생활의 연속에서 선수 모두가 먹고 싶었던 싱싱한 회와 두툽한 초밥으로 푸짐하게 잘 먹고 기운까지 차렸다고... 그렇게 선수들 사기가 충전해져서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더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엔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타국에서 고생한 선수들에게 든든한 밥 한 그릇 먹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엔젤의 마음일 것입니다.

문득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앞에 두니, 어제 FA컵 8강전에서 김천상무를 극적인 역전승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한 대구FC 선수들이 생각났습니다. 밥심(心)이 엔젤심(心)입니다. 우리는 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혜영의 밥이 주는 진심, ‘거대한 밥’으로 마무리 합니다.

다닥다닥 / 붙은 밥알이 우리라는 거 / 서로가 서로에게 / 밥이 되기도 한다는 거(한혜영의 ‘거대한 밥’) 

송원배 엔젤, 시인 등단

행복한 시의 길 “걸어갈 것”



수많은 시를 외우고 낭송해 온 송원배 엔젤((주)대영레테코 대표)이 문학 잡지 《文章(문장)》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계간 《文章(문장)》은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하여 신인상을 공모한 결과 시 부문에 송원배 엔젤의 ‘도시비둘기’ ‘목장갑 피다’ 등 5편을 제56회 신인상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 중에 특히 따뜻한 서정이 돋보인 송원배 님의 ‘목장갑 피다’를 수작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짧지만 선명하고 맛깔나는 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당선자로 선정함에 망설임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시골집 마당 회양목 위 / 목장갑 꽃 환하게 피었다(중략)

빈집 지키는 목장갑 곁에 / 아카시아 꿀벌들 왕왕 거리는데 //

봄 캐러 마실 나간 엄마 / 언제 오실꼬

‘목장갑 피다’ 중에서

국어교과서 시 뭉땅 외운 시 사랑꾼, 이제 시인으로 행복 찾아 나서

송원배 엔젤은 “유안진님의 ‘현대인이라면 시 다섯 편은 외워야 한다’는 문장을 보고 현대인이 되고 싶어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뭉땅 외웠다”며 “버스 기다리는 시간, 고향 가는 길에서도 별을 보며 시를 읊었다. 시는 참 말로 행복하다. 행복한 시를 직접 쓰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시공간’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원배 엔젤은 지역 대표적인 분양대행사 대영레테코(주)의 대표 및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로 《매일신문》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방송 출연 등으로 지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계간 《文章(문장)》 여름호

Angel & Life

박윤하 엔젤, 지역 SW업체 최초 상장 도전



박윤하 엔젤(우경정보기술 대표)이 대구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처음으로 상장에 도전하고 있다. 박윤하 엔젤은 NH투자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실사 단계에 있으며 2023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윤하 엔젤이 이끌고 있는 우경정보기술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영상정보 보안 시스템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경정보기술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140억원) 대비 4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명현 엔젤, 이웃사랑 미숫가루



이명현 엔젤(주)동광명품도어 대표)는 지난 8월 13일 대구 서구청을 방문해 미숫가루 170봉(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쪽방상담소를 통해 혹서기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전달됐다.

김동국 엔젤, '도전 한국인상' 수상



김동국 엔젤(DK 글로벌 코리아 대표)이 서울시의회로부터 '도전 한국인상'을 수상했다. '도전 한국인상'은 평소 대한민국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나눔과 도전정신 확산에 이바지한 국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김동국 엔젤은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힘써 온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건설의 날 김석 엔젤, 도재영 엔젤 '대통령 표창', '국토부장관 표창' 각각 수상



김석 엔젤



도재영 엔젤

김석 엔젤(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주)삼우토건 대표이사)은 서울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1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석 엔젤은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제7공구), 서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1단계) 등 포장공사 부문에 안전과 책임시공, 공사품질 향상으로 건설업의 위상과 공신력 제고 및 국가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도재영 엔젤자문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명예회장/주)웅진기업 대표이사)도 이날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자문위원은 전문건설 분야에 26년 동안 몸담아 오면서 상수도 발전과 전문건설산업의 위상제고에 힘써왔다.

※ <Angel & Life>는 엔젤들의 자료 제공으로 이뤄집니다. 앞으로 많은 엔젤님들의 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열 엔젤자문위원, (사)대구식품협 초대 회장 취임



김성열 엔젤자문위원(아나식품 대표)은 대구식품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열 자문위원은 "협회 창립은 대구시를 식품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함이다. 김치, 고추장과 같은 식품산업이 산업화된 도시가 바로 대구"라며 "대한민국식품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데에 대구 중소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석한수 엔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20대 회장 취임



석한수 엔젤이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온라인투표 63.7%를 득표해 회장에 당선됐다. 취임 이후 석한수엔젤은 '오직 회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의 삶을 챙기고 모두가 행복한 동행을 위해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석회장은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잘사는 건축사, 존경받는 건축사가 되어 하나되는 협회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영만 엔젤, 코로나 방역유공 행안부 장관 표창



정영만 엔젤(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이 '코로나19 방역대책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정영만 엔젤은 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회장으로서 그동안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익캠페인 광고와 언론매체에 칼럼을 기고해 왔다.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방역의지를 고취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양을 위해 시민운동을 선도해 왔다.

안중수 엔젤 대구시태권도협회회장 재선



안중수 엔젤(태원씨앤씨 건설 대표이사)이 대구 태권도협회장에 재선됐다. 이번 당선으로 안 현회장은 지난 2016년 이후 연임에 성공, 앞으로 4년 더 태권도협회를 이끌게 됐다. 안중수 엔젤은 "부족한 저와 협회를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청명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협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수 엔젤, 대구광역시수상스키·수상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조현수 엔젤(푸른방송 대표이사)이 제3대 대구광역시수상스키·수상웨이크스포츠협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대구달서구체육회 이사를 역임 중인 조현수 엔젤은 평소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큰 애착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 조 회장은 "수상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수상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스포츠로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구 전용구장시대 2021년에도 엔젤클럽은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가입문의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전화 053-602-7307

☎ 팩스 053-602-7306

대구FC엔젤클럽 홈페이지

www.dgfcangel1004.co.kr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1,000만 원 이상
- 일반 100만 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12만 원 이상 / 월 10,000원 *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드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엔젤 릴레이

-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

홈경기 직접관람 응원

- 대구FC 홈경기 시 엔젤존 운영(DGB대구은행파크 W1, W2, W3)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클럽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 권유

혜택

- 가입기념품
- 행사 참여
- 홈경기 관람(후원금 액수 내에 가능)

대구FC엔젤클럽의 뿌리_ 5년 엔젤

우리 선수들 성장, 후원에 큰 보람 5년 엔젤 이구동성異口同聲

지난 호의 '5년 엔젤 특집'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엔젤이 출범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초기 엔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는 재미도 남달랐다. 무엇보다 엔젤들의 가족사진이 많이 실려 뜻 깊었다. 모두들 선남선녀, 그 엔젤에 그 가족들이었다. 축구장,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것과 달리 한 가족의 일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 마음 한 곳이 훈훈해 졌다. 이번 호에도 5년 엔젤을 실었다. 5년 엔젤 특집을 이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5년은 '단 기간'이 아니다. 또한 5년은 단순한 숫자 '5'가 아니다. 쉽게 멈출 수 없는 숫자다. 이제 진심으로 엔젤이 되었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음식점도 5년이 지나면 자리 잡는 법이다. 음식도 자리 잡고, 단골도 생기며, 철학도 생긴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10년은 금방이다. 엔젤클럽도 5년이란 시간을 지나왔다. 탄탄한 시민단체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 역시 '5년 엔젤' 원고와 사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5년 엔젤들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드러내 놓고 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문자, 전화는 물론 다른 엔젤들의 자료들을 첨부하며 원고를 보내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때로는 '5년 엔젤의 존재를 알려야 더 많은 엔젤이 올 수 있다'며 은근히 협박(?)했고, 가까운 엔젤에게 부탁 하여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대부분의 엔젤이 그렇게 사정 사정 끝에 허락해주신 분들이다. 그렇지만, 아쉽게 놓친 분들도 많다. 하지만 매거진 제작팀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년 엔젤을 찾아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5년 엔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성장에 오히려 고맙다는 엔젤', '코로나19에 큰 힘이 됐다는 엔젤', '대구의 성장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 등등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엔젤의 선한 영향력은 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지면을 통해 원고와 사진,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엔젤분들께 감사드립니다.🙏

Q 대구FC엔젤클럽의 뿌리_ 5년 엔젤에게 물어봤습니다~

1.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2.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5년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등 대구사랑을 실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셨습니까?
3.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대구FC선수들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코로나19로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 좋아하는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엔젤’이어서 감사

강정영 엔젤 (주)대영와이앤 대표 / 뉴스웨이대구경북본부장



1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작년 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 력저력 또 적응해가면서, 간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도 대구FC 경기를 직관하면서, 어려운 시절 엔젤로 살아갈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2 2017년, 광고와 언론일을 하는 저에게 엔젤클럽 홍보 관련 봉사를 해달라는 회장님의 요청 을 받고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일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의 매력에 빠 졌죠. 넘치는 에너지, 하늘을 울리는 함성, 벅차오르는 감동... 이제는 후원한다기보다 제 삶 의 큰 위로입니다.

3 당연하지요~ 답답하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는 우리 삶 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대구FC는 ‘원팀의 조직력으로 스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FC 선수들은 대구시민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주고 있 습니다.



DF 김진혁 선수

4 모든 선수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돌아온 수트라이커 김진혁 선수!! 엄지 척!!!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 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해주고 있 네요~

대구FC는 대구의 건강한 성장의 상징

권영갑 엔젤 주식회사 EMS 대표



1 코로나19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만, 이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 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임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재도 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 기업을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목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특 히 대구FC는 대구의 건강한 성장을 상징하고 시민들에게는 기쁨과 자긍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구단을 시민의 힘으로 성공시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대구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 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지금도 제한된 인원만 수용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리그 상위권에 위치 해 있으며 ACL에서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약이 대구시민들에게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건상 코로나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더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 의 이러한 마음이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FW 세징야 선수

4 세징야 선수입니다. 한때 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팀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팀의 중심이 되어, 좋은 성적을 이끌어 왔습니 다. 화려한 드리블과 강력한 슈팅으로 이 번 시즌도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시민으로서 대구FC 사랑 '당연'

김규정 엔젤 삼성생명 명인



- 1 사회적으로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뵙기 어려운 엔젤 회원님들께 글로써나마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 2 대구시민이라면 대구를 사랑하고 우리지역 대표 축구팀인 대구FC를 사랑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구FC는 시민축구단이기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관심가지고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젤클럽은 그런 시민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단체여서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 3 무더위에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성적까지 좋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우승하여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큰 힘을 보내주세요!



GK 최영은 선수

- 4 최후방에서 골문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최영은 선수를 응원합니다. 처음에는 최영은 선수의 고함소리가 소음으로 들렸지만, 이제서야 최영은 선수가 뒤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대박 가득 목놓아 응원할 날 기대

김동규 엔젤 (주)범서 대표



- 1 무엇보다 대박에서 선수들을 마음껏 응원할 수 없다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지만, 어서 엔젤과 시민들로 가득찬 대박에서 목놓아 대구와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2 창단부터 기업구단이 아닌 우리들의 축구팀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응원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엔젤클럽이 창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팀을 후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3 코로나19라는 좋지 않은 여건에서 시즌 초반 어려운 시기를 지나 지금은 구단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대구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MF 박민서 선수

- 4 저는 현풍고에서 대구로 입단한 올해 등번호 16번인 박민서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풍고 경기를 보러 갔다 플레이도 마음에 들고 같이 사진도 찍게 되어 응원을 하고 있죠. 곧 멋진 활약을 펼칠 박민서 선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ACL 진출로 실력 입증한 대구FC

김용범 엔젤 (주)에스알 대표



- 1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2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은 K리그 최초의 시민구단입니다. 대구시민이 주인이고, 대구시민이 관심을 가져야만 더 발전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 3 올해 리그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고, ACL 16강에 진출하며 우리 대구FC가 아시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우리선수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병근 감독

- 4 이병근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훌륭한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잘 이끌어,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성적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대구FC 선전으로, 대구위상 달라져

김종호 엔젤 (주)우인바스텍 대표



- 1 국민 모두가 겪는 전대미문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규범에 따라 생활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 워낙 스포츠에 자질이 없어서 어떤 종목이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젤활동을 하는 것도 축구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도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대구지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뜻을 모아 시민구단을 후원함으로써 대구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적인 후원회에 적극 참여해 자그마한 힘이 되고자 합니다.
- 3 마치 유럽 축구장처럼 함성이 가득한 대박으로 인해 대구축구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구FC 성적도 좋아 시민들의 자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른날 소나기 같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FW 에드가 선수

- 4 대구FC 모든 선수의 건강과 활약을 기대하며 특히 에드가 선수의 굳건한 역할 기대합니다.

선수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 엔젤로 표현

박기자 엔젤 (주)무영 대표



- 1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전과 달랐던 생활 패턴에 적응하고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져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 2 아들이 운동하는 것을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항상 선수들에게 애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는 제2의 고향이며 두 아이들의 고향이 지요. 항상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엔젤에 가입되어 '축구를 통해 대구를 사랑'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 3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지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한마디로 기를 팍팍 살려 주었지요. 자랑스러워요~^^



MF 황순민, MF 박한빈 선수

- 4 황순민 선수와 박한빈 선수를 응원합니다. 특히 두 선수는 항상 열심히 뛰며 자신을 희생 하더라고요. 열렬하게 응원의 박수 드립니다.

경기 당일, 운동회처럼 마음 설레

박혜영 엔젤 대구FC엔젤클럽 운영이사



- 1 불편한 일상이지만, 그래도 평범한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구시민들과 함께 깃발 흔들고, 마음껏 응원가 부르고, 그런 날들이 눈물겹도록 그립습니다.
- 2 지인 소개로 무념무상으로 첫발을 디뎠지만, 지금은 저의 스케줄에 축구일정표를 먼저 체크할 정도입니다. 그저 하늘색 유니폼 입은 선수가 '우리편이구나'라고 생각하던 수준에서 차츰 차츰 선수 이름 기억하고, 그 선수 포지션도 알고, 요즘은 혼자서 평가도 할 줄 아는 안목까지 생기게 되더군요. 진정한 대구FC 축구팬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 3 경기가 있는 날 축구장으로 향하는 마음은 마치 어린 시절 학교 운동회에 가는 긴장과 설렘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축구팬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박수쳐 주고, 그들 마음 속에 들어간 축구팬이 됐습니다. 승리한 날은 그냥 좋아서 신나고, 패한 날에는 더 큰 소리로 고개 숙인 우리 선수를 위로해주며 선수와 함께하는 엔젤이 되고 싶습니다. 5년 엔젤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제가 축구를 통해 더 많은 위안을 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FW 안용우 선수

- 4 안용우 선수를 응원합니다. 원발슛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든든한 선수가 지요. 앞으로 부상없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축구是我的生活! 대구FC是我的幸福!

배태관 엔젤 비엔에이 대표



1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저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2 생활체육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저 축구를 사랑하고 대구FC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후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매거진을 통해 5년 엔젤의 의미를 살린다고 하니 이렇게 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후원하는 마음으로 엔젤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술 한 잔 적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3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축구가 대구시민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기쁨도 남다를 것입니다. 특히,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무대인 ACL에 진출해서도 많은 득점을 올리며 16강에 진출해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할 것입니다.



DF 정태욱 선수

4 요즘 정태욱 선수 보는 맛으로 삽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정태욱 선수를 비롯한 수비수들이 안정적인 수비를 하고 있어서 대구의 요즘 성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공공재! 시민으로서 당연히 엔젤 참여

백무연 엔젤 (주)뷰티코하트 대표



1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의기소침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축구에 관심도 없었고,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이고, 시민구단이기에 당연히 대구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축구는 공공재'라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게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엔젤이고 싶습니다.

3 올해는 바쁜 일정으로 경기장을 많이 찾지 못했지만, 늘 휴대폰으로 대구FC 경기는 챙겨보고 있습니다. 힘든 일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볼 때면 너무 대견스럽고, 더군다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팍팍한 일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DF 장성원 선수

4 모든 선수들을 골고루 응원하지만, 특히 장성원 선수를 응원합니다. 악바리같은 근성으로 출전할때마다 투혼을 불사르는 플레이를 볼때마다 너무 멋집니다. 남은 경기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엔젤하다보니, 어느새 5년

송원배 엔젤 (주)대영레데코 대표



- 1 코로나19는 경제적인 위축을 가져왔고,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만나고 눈짓을 교환하고 따뜻한 손을 맞잡아 보아야지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그럼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그리운 만남이 기다리면서요.
- 2 벌써 5년이라구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봅니다. 앞으로 10년도 그럴 것 같네요.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루어 내던 뜨거운 함성을 생각해봅니다.
- 3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전합니다.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월드컵 4강 등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스포츠 정신은 빛납니다.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대구FC 경기를 보면서 우리 대구시민들에게도 큰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DF 이진용 선수

- 4 대구FC 유스출신 이진용 선수를 응원합니다. 율원중과 현풍고를 거쳐 대구FC에 입단한 이진용 선수는 올해 근성 있는 수비로 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스출신의 성장도 대구FC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족·건강·엔젤의 의미 되새겨

심인철 엔젤 동명테크윈(주) 대표



- 1 너 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니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뛰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생활수칙을 지키며, 균형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 2 '축구사랑을 통해 지역을 사랑하자'는 엔젤클럽의 목표가 좋았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티즌오블리주(시민책무)를 실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모든 엔젤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어서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 3 한때 대구FC는 언제나 하위권에 머무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지만, 요즘은 생각만 해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구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DF 홍정운 선수

- 4 우리 선수 누구나 모두 훌륭합니다. 굳이 들자면, 잦은 부상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고 복귀한 홍정운 선수에게 마음이 갑니다. 안정된 수비로 '팔공산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선수이지요. 아무쪼록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구단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이중락 엔젤 대구영화협회



- 1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열린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 2 2016년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구FC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만큼 우리 대구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뿐만 아니라, 최고의 시민구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그리고 엔젤의 힘이 필요합니다.
- 3 물론입니다.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과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리그 상위권에서 고군분투해주고 있는 우리 달구벌전사들이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에게 힘과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MF 라마스 선수

- 4 이번에 영입된 라마스 선수를 응원합니다. 브라질 용병 트리오가 합을 잘 맞추어 이번 시즌 일 한번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FC선수단 모두 화이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분주한 나날

이화선 엔젤 (주)GIA 칼빈다이하몬드 대구지사장



- 1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많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행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대구FC가 최근 들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대구의 도시 이미지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구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구단을 후원하는 데 동참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3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할 시민들에게 최근 날아든 대구FC의 활약상은 생활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엔젤들과 대구FC 경기 결과와 선수들의 활약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잠시나마 코로나를 잊을 수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승전보를 기대합니다.



FW 세징야 선수

- 4 세징야 선수의 활약에 늘 응원을 보냅니다. 항상 부상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보다 많은 승리의 소식을 대구시민들에게 전해줄 바랍니다.

대가 없는 순수한 후원에 큰 의미

정소영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 (주)창성산업 대표



- 1 코로나19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엔젤 여러분들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 속에 마스크까지 끼고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엔젤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축구, 대구FC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힘을 내고 있습니다.
- 2 축구는 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비록 개인사정으로 축구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동호인 축구에 몸담아 오면서 축구를 생활화 했습니다. '축구사랑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한다'는 엔젤의 슬로건은 축구의 클래식한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때문에 엔젤 가입은 제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엔젤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사항 없이 순수하게 축구와 시민구단 만을 생각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 3 축구는 그 자체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입니다. 더군다나 시민구단인 만큼 대구FC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우리들의 축구단'입니다. 엔젤,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우리팀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대구FC의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구는 하나다

- 4 모든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무리 해주길 바라지요. 다만, 장기적인 대구축구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어린 선수들이 대구에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적응 위해 기업역량 집중

조만현 엔젤부회장 (주)동우씨엠건설 회장



- 1 위기 속에서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주거서비스 플랫폼(세이버스 온 관리사무소)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전환과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를 개발하는 등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2 대구FC는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최초의 시민구단입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구단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단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 3 올해 대구는 ACL에서 창단 최초로 16강에 진출하였고,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FC의 끊임없는 승전보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큰 위안과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팀! 대구FC

- 4 대구FC의 모든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다가올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5년 후원, 이젠 가족같은 대구FC

조병래 엔젤 디자인해밀 대표



- 1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리라 믿고 평소와 같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부끄럽네요! 10년도 아니고~~~ 평소에도 저는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즐겁니다. 우연히 봉사단체에서 지인의 소개로 엔젤클럽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후원만 이 아니라 대구FC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되다보니 나도 모르게 대구FC 구단 관계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 3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대구 시민들이 엄청 힘들었을 때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DF 김우석 선수

- 4 대구FC 선수들 다 좋아라 합니다.^^ 그 중 잠깐 인연이 있었던 김우석 선수! 부상 없이 오래도록 뛰는 모습 보고 싶네요. 늘 응원합니다. 우석 화이팅!!

푸른 대구, 푸른 엔젤, 푸른 희망!

조현수 엔젤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 대표



- 1 푸른방송 임직원들과 가족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덕분에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다 나은 품질과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극복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언론, 방송사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오랜 기간 달서구 체육회에 후원을 하고 있을 때, '대구를 대표하는 축구팀 발전에 동참하자'는 출범초기 엔젤들의 권유로 망설임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FC가 대한민국 명문구단의 명성을 얻을 때까지 푸른방송이 함께 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3 한 때 2부 리그에서 1승이 간절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1부 승격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니 후원하는 보람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선수들이 의기투합하여 좋은 성적으로 리그 상위권에 있고, ACL 진출까지 이뤄낸 모습이 시민들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FW 이근호 선수

- 4 이근호 선수를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의 열정과 베테랑 선수들의 노련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의 팀으로 공수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 대구FC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시대, 긍정적인 마음이 백신

차인석 엔젤 (주)대성엔팩스 대표



-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요즘입니다. 그나마 제가 하는 일은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계속될 지 추이를 지켜보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이호경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엔젤이 되었지만, 하다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이에 대구FC가 한층 성장한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운 동장에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늘 대구FC 경기를 챙기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국내 프로 리그 그리고 아시아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멋진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면, 시민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모두들 지쳐있을 터인데, 대구FC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FW 정치인 선수

-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는 정치인 선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 출신인데다 신체도 좋고, 발전 가능성도 높죠. 얼마 전 6년 만에 데뷔골을 넣은 만큼, 후반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엔젤톡방 다양한 소식 접하며 코로나 이겨내

최규락 엔젤 동양이엘 대표



-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크방을 통해 전해오는 다양한 엔젤클럽과 엔젤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친구의 소개로 엔젤클럽의 순수한 뜻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대구FC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이 하나하나 모일 때 대구FC는 시민구단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모두가 지치고 힘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승전보는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엔젤의 전사 대구FC

- 대구FC 선수단 전원을 사랑합니다.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모두 큰 부상없이 건강하게 올 시즌을 마무리하기를 기원합니다.

‘힘들 때가 승부다’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

최재호 엔젤 (주)골든크라운 대표



- 1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들 때가 승부다’ 라는 말 처럼 하루하루 더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2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의 주인은 바로 대구시민입니다. 대구시민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구FC가 더 멋진 명문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할 것입니다.
- 3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ACL 16강 진출과 11경기 무패행진 등 멋진 모습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이 자랑스럽고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대구시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구 축구, 야구 모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지만, 대구FC와 삼성라이온즈 등 지역 연고 프로팀들의 선전을 보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MF 오후성 선수

- 4 현풍고 출신의 오후성 선수를 응원합니다. 올해 자주 그라운드에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발재간이 좋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성장,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큰 힘

최효욱 엔젤 (주)월성주택건설



- 1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 사정과 관련해, 생활 및 생계 유지가 힘든 분들을 접하며 저 또한 안정적인 상황 유지에 힘을 쏟는 중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모두 잘 헤쳐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2 주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대구FC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공감하며 엔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FC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좋은 팀으로 자리잡은 만큼,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3 짧은 창단 역사에도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은 강하다

- 4 특정 선수를 지칭하기보다는 모든 선수들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선수단 모두 엄격한 자기관리(프로선수로서의 자질과 체력관리 등)를 부탁드립니다.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김천상무 전역후 포항전(8.1.)에서 복귀골을 터뜨린 박병현의 환호

DAEGU FC REPORT

대구FC, 써드 유니폼 출시

대구FC, 써드 유니폼 'LIVE THE GOAL' 출시

대구FC 온라인 스토어에서 단독 판매
8월 28일(토) 성남전 홈경기 유니폼 착용...골스튜디오 브랜드워크 진행



대구FC가 8월 23일(월) 팬들의 빛나는 꿈을 담아낸 써드 유니폼을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한 2021시즌 써드 유니폼은 8월 28일(토) 성남전 홈경기에서 처음 착용했다. 대구FC가 킷파트너 골스튜디오와 함께 선보인 2021시즌 써드 유니폼 'LIVE THE GOAL'은 블랙 색상을 메인 컬러로 선정하였으며, 은은하게 들어간 GOAL 그래픽 패턴은 꿈을 향한 열정을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존 축구 유니폼에서 찾아보기 힘든, 빛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내뿜는 홀로그램 마킹을 적용해 대구FC 선수들과 팬들의 형형색색 빛나는 다양한 꿈을 상징했다.

대구FC의 2021시즌 써드 유니폼은 선수 지급용 유니폼과 동일한 기능성 원단인 어센틱 버전으로 한정수량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0만 9천원(마킹 비용 별도)이며, 커스텀 마킹은 불가하다. 써드 유니폼은 8월 23일(월)부터 대구FC 온라인 스토어(www.daegu1mail.co.kr)에서 단독 판매하며, 오프라인 판매 계획은 없다.

한편, 대구FC는 써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성남FC와의 홈경기에서 3 대 1 대승을 거두며 연패를 끊는 등 써드 유니폼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동안 침묵했던 세징야가 멀티골을 터뜨렸으며, 6년 동안 골을 기록하지 못한 정치인선수도 데뷔골을 기록하며 써드 유니폼 매직을 만들었다. 

현풍고,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

대구FC U-18 현풍고, 2021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

승부차기 접전 끝에 광주FC U-18 금호고 꺾어
이문선 감독 '최우수지도자상', 주장 박용찬 '최우수선수상' 수상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 U-18팀인 현풍고가 '2021 K리그 U18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지난 8월 30일 치러진 결승에서 현풍고는 광주FC U-18팀인 금호고와 연장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우승했다. 이번 우승으로 현풍고는 2015년 시작을 알린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기록하며, 올 여름 K리그 22개 구단 산하 유소년팀 중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11년 제52회 청룡기 우승, 2019년 제41회 문체부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올해 7회째를 맞은 'K리그 U18 챔피언십'은 K리그 산하 고등부 클럽(U-18)이 출전하는 대회로 올해는 22개 팀이 참가해 경남 창원군에서 지난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결승전에 나선 현풍고는 연장 접전 끝에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금호고를 8-7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현풍고의 수비수 박용찬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최우수지도자상은 현풍고 이문선 감독에게 돌아갔다. 이문선 감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승을 이뤄낸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초반 성적이 안 좋았는데 구단에서도 끝까지 믿어주었고, 이번 챔피언십에서 꼭 우승으로 보답하고 싶었는데 목표를 이루게 되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브라질 출신 라마스, 대구 삼바 트리오 완성

프로 통산 235경기를 뒀 베테랑
등번호 10번, 드리블 능력으로 대구 공격에 새로운 활력



자료제공. 대구FC

지난 7월 대구FC에 입단한 라마스가 날카로운 원발슛과 패싱력을 선보이는 등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있다. 178cm/78kg의 체격을 지닌 중앙 미드필더 라마스는 빠르고 영리한 데다 화려한 개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드리블 능력이 좋아 에드가, 세징야 등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대구의 공격에 불어넣고 있다. 라마스는 2015년 렉소에스 FC(포르투갈 2부)에서 프로에 데뷔해 2017~2018시즌까지 144경기에 출전해 24득점 10도움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 이후 2018~2019시즌 산타 클라라(포르투갈 1부), 2019~2021시즌 코르파칸(아랍에미리트 1부)에서 활약하는 등 프로통산 235경기에 출전했다. 지난 8월 20일 입단식을 갖고 등번호 10번을 부여받은 라마스는 “나를 불러주신 대구 FC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며, 좋은 움직임으로 팀에 보탬이 되겠다.”며 대구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 **4**

라마스 MF

생년월일 1994. 4. 13.
전 소속 Khor fakkan(아랍에미리트 1부)
신체 178cm / 78kg
포지션 MF
등번호 10번

대구FC, 영남대 출신 수비수 이상기 영입

K리그 통산 84경기 출전한 측면 멀티 플레이어
전역 후 대구에서 새로운 도전... “대박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자료제공. 대구FC

대구FC가 하반기 수비 보강을 위하여 포항스틸러스의 수비수 이상기(25)를 영입했다.

지난 2017년 포항스틸러스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상기는 2019년까지 포항에서 K리그 72경기에 출전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이상기는 2020년 상주상무에 입대해 김천상무를 거치며 K리그 통산 84경기를 기록, 최근 전역했다.

이상기는 우수한 활동량과 중거리 슈팅 능력이 강점인 선수다. 또한, 측면 멀티플레이어로 다양한 전술 조합이 가능해 대구의 전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 입단하게 된 이상기는 “시즌 중간에 입단하게 된 만큼 빨리 팀에 적응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를 5개 이상 올려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입단 각오를 밝혔다. **4**

이상기 DF

생년월일 1996. 5. 7.
학력 영남대-포항제철고
신체 179cm / 78kg
포지션 수비수(DF)
등번호 17번
주요 경력(K리그 기준)
2020~2021.06 김천상무 12경기
2017~2019 포항스틸러스 72경기

보아라! 포효하는 Angel Warriors!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FC의 승전보는
엔젤에게 백신같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엔젤의 전사들입니다!





1 최영은

생년월일 1995. 9. 26.
신체 189cm, 78kg
전 소속 성균관대
출신교 과천고
포지션 GK
K리그 통산기록
43경기 53실점 0도움



2 서경주

생년월일 1997. 8. 11.
신체 175cm, 70kg
전 소속 서울이랜드
출신교 전주대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18경기 1득점 0도움



3 김우석

생년월일 1996. 8. 4.
신체 187cm, 74kg
전 소속 신갈고
출신교 장안중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104경기 2득점 2도움



4 정태욱

생년월일 1997. 5. 16.
신체 194cm, 92kg
전 소속 제주UTD
출신교 아주대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84경기 3득점 2도움



5 김재우

생년월일 1998. 2. 6.
신체 187cm, 84kg
전 소속 부천FC
출신교 영등포공고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51경기 1득점 3도움



6 홍정운

생년월일 1994. 11. 29.
신체 187cm, 76kg
전 소속 명지대
출신교 개성고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96경기 6득점 2도움



7 김진혁

생년월일 1993. 6. 3.
신체 187cm, 78kg
전 소속 송실대
출신교 과천고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125경기 17득점 2도움



8 박한빈

생년월일 1997. 9. 21.
신체 183cm, 80kg
전 소속 신갈고
출신교 백암중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80경기 4득점 1도움



9 에드가

생년월일 1987. 1. 3.
신체 191cm, 87kg
전 소속 Buriram United
포지션 FW

K리그 통산기록
78경기 28득점 15도움



10 라마스

생년월일 1994. 4. 13.
신체 178cm, 78kg
전 소속 Khor fakkan
(아랍에미리트 1부)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5경기 0득점 0도움



11 세징야

생년월일 1989. 11. 29.
신체 177cm, 74kg
전 소속 Bragantino
포지션 FW

K리그 통산기록
170경기 66득점 44도움



13 오후성

생년월일 1999. 8. 25.
신체 173cm, 64kg
전 소속 현풍고
출신교 진주중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30경기 1득점 2도움



14

안용우

생년월일 1991. 8. 10.
신체 176cm, 69kg
전 소속 사간도스
출신교 동의대
포지션 FW

K리그 통산기록
136경기 13득점 12도움



15

윤종태

생년월일 1998. 2. 12.
신체 182cm, 82kg
전 소속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4경기 0득점 0도움



16

박만서

생년월일 2000. 9. 15.
신체 175cm, 68kg
전 소속 현풍고
출신교 울산중
포지션 MF



17

이상기

생년월일 1996. 5. 7.
신체 179cm, 78kg
전 소속 영남대
출신교 포항제철고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86경기 4득점 4도움



18

정승원

생년월일 1997. 2. 27.
신체 170cm, 68kg
전 소속 안동고
출신교 신태인중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117경기 8득점 14도움



19

박기동

생년월일 1988. 11. 1.
신체 191cm, 83kg
전 소속 경남FC
출신교 송실대
포지션 FW

K리그 통산기록
233경기 34득점 31도움



20

황순민

생년월일 1990. 9. 14.
신체 178cm, 69kg
전 소속 쇼난벨마레
출신교 카미무라고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208경기 16득점 16도움



21

박성수

생년월일 1996. 5. 12.
신체 192cm, 83kg
전 소속 에히메FC, 하남FC
포지션 GK



22

이근호

생년월일 1985. 4. 11.
신체 176cm, 74kg
전 소속 울산현대
출신교 부평고
포지션 FW

K리그 통산기록
318경기 75득점 52도움



23
김태양

생년월일 2000. 2. 7.
신체 184cm, 77kg
전 소속 연세대
출신교 부평고
포지션 FW



25
황병권

생년월일 2000. 5. 22.
신체 175cm, 70kg
전 소속 수원FC
출신교 보인고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21경기 1득점 0도움



26
이진용

생년월일 2001. 5. 1.
신체 180cm, 73kg
전 소속 현풍고
출신교 울원중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22경기 0득점 0도움



28
최민기

생년월일 2002. 11. 8.
신체 180cm, 73kg
전 소속 장훈고
출신교 문래중
포지션 MF



30
박병현

생년월일 1993. 3. 28.
신체 184cm, 84kg
전 소속 부산 아이파크
출신교 상지대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63경기 3득점 1도움



31 이윤오

생년월일 1999. 3. 23.
신체 190cm, 84kg
전 소속 베갈타 센다이
출신교 중동고
포지션 GK

K리그 통산기록
1경기 0실점 0도움



32 정치인

생년월일 1997. 8. 21.
신체 182cm, 71kg
전 소속 대구공고
출신교 울진중
포지션 FW

K리그 통산기록
27경기 1득점 1도움



33 제갈재민

생년월일 2000. 8. 12.
신체 178cm, 74kg
전 소속 전주대
출신교 제천제일고
포지션 FW



34 손승우

생년월일 2002. 3. 18.
신체 176cm, 71kg
전 소속 천안제일고
출신교 매탄중
포지션 DF



36 김희승

생년월일 2003. 1. 19
신체 184cm, 81kg
전 소속 천안제일고
출신교 신명중
포지션 MF



37
이종훈

생년월일 2002. 3. 21.
신체 175cm, 70kg
전 소속 현풍고
출신교 울원중
포지션 FW

38
장성원

생년월일 1997. 6. 17.
신체 175cm, 70kg
전 소속 한남대
출신교 통진고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41경기 0득점 3도움



39
박재경

생년월일 2000. 4. 28.
신체 190cm, 80kg
전 소속 학성고
출신교 장철민FC
포지션 DF



40
신중

생년월일 2001. 11. 13.
신체 175cm, 71kg
전 소속 청구고
출신교 John paul college
포지션 FW

41
이학윤

생년월일 2000. 3. 9.
신체 189cm, 75kg
전 소속 포항제철고
출신교 경신중
포지션 GK





42

안창민

생년월일 2001. 6. 28.
신체 189cm, 81kg
전 소속 부평고
출신교 부평동중
포지션 FW



44

초바사

생년월일 1990. 4. 8.
신체 173cm, 66kg
전 소속 MFK ZEMPLIN MICHALOVCE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70경기 4득점 5도움



66

조진우

생년월일 1999. 11. 17.
신체 189cm, 81kg
전 소속 마츠모토 야마가
출신교 인천남고
포지션 DF
K리그 통산기록
28경기 0득점 0도움



74

이용래

생년월일 1986. 4. 17.
신체 175cm, 71kg
전 소속 치앙라이
출신교 고려대
포지션 MF
K리그 통산기록
235경기 19득점 18도움

감독 이병근

1973. 4. 28.
수원삼성 / 한양대



수석코치 최원권

1981. 11. 8.
대구FC / 동북고수원삼성 / 한양대



2군 코치 정철영

1981. 11. 21.
전주공고 / 경희사이버대



물리치료사 노현욱

1970. 3. 13.
용인대 / 영신고



GK코치 이용발

1973. 3. 15.
인천UTD / 동아대



전력분석코치 이종현

1987. 1. 8.
김해시청



피지컬코치 베네디토

1974. 3. 5.
Atletico Clube Goianiense



트레이너 박해승

1984. 3. 11.
대구FC U-18 / 대구대



트레이너 이대균

1990. 8. 8.
대구한의대



키트매니저 고강훈

1994. 8. 16.
계명대



Thanks ANGEL CLUB!

ANGEL DIARY



코로나 뚫고 엔젤카가 간다

벌써 2년째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 나 없이 힘든 시기임에도 엔젤들의 후원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생각하며, 엔젤오블리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엔젤 여러분!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누락되거나 6월 30일 이후의 엔젤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강성길 엔젤
(주)디자인비전



강윤석 엔젤
(주)조안



강정영 엔젤
(주)대영와이앤



강종구 엔젤
(주)현대코퍼레이션



김동국 엔젤
DK글로벌코리아



김동규 엔젤
(주)범서



김동휘 엔젤
굿네이버스



김명용 엔젤
(주)명성



강환수 엔젤
(주)덕산코트렌



고민환 엔젤
(주)상산건설



고삼규 엔젤
보광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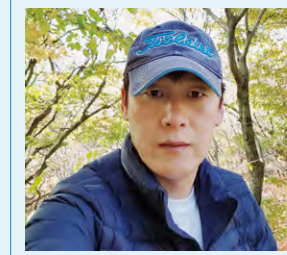
공윤욱 엔젤
선진회계법인



김명일 엔젤
제이엔엘 파사드



김범현 엔젤
(주)한라이앤씨



김상길 엔젤
(주)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



김상수 엔젤
히아브하나



권영갑 엔젤
(주)EMS



권오복 엔젤
(주)진명아이앤씨



권오순 엔젤
(주)디에스시스템



권오중 엔젤
(주)대유기전공사



김성렬 엔젤
(주)대성건업



김순조 엔젤
삼성생명



김승우 엔젤
KS상사



김영숙 엔젤
대구보건대학교



권일경 엔젤
(주)위드



김영일 엔젤
(주)고위드



김갑태 엔젤
(주)아름



김강수 엔젤
푸르덴셜생명



김영식 엔젤
굿락코리아(사진 왼쪽)



김영채 엔젤
안경회계법인



김오동 엔젤
명신종합건설(주)



김용범 엔젤
(주)에스알



김경식 엔젤
대곡자동차매매상사



김규정 엔젤
삼성생명



김달호 엔젤
동광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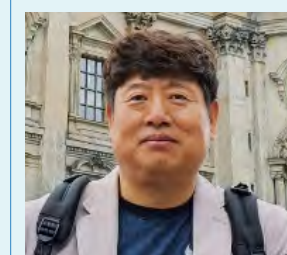
김동구 다이아몬드엔젤
금복주



김우일 엔젤
(주)김샘교육



김재범 엔젤
선진회계법인



김재운 엔젤
(주)한국알파시스템



김재우 엔젤
대양정밀



김재울 엔젤
(주)영림INT



김재훈 엔젤
대호약품



김종선 엔젤
세광종합상사



김종태 엔젤
(주)제이제이건설



박경환 엔젤
박경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관식 엔젤
명진BS치과



박기자 엔젤
(주)무영



박길상 엔젤
남북의료기상사



김주현 엔젤
(주)신안피피



김준목 엔젤
신정산업



김진성 엔젤
푸르덴셀생명



김진엽 엔젤
송산엘앤씨



박두한 엔젤
오르다승무원학원



박명규 엔젤
(주)우진설비



박명수 엔젤
(주)명진금속



박소민 엔젤
디자인그린



김현만 엔젤
서원종합건설(주)



김현철 엔젤
에인에이(주)



김호용 엔젤
(주)건강누리



김huis 엔젤
TBC



박순아 엔젤
(주)코넥스투자산업용



박승환 엔젤
(주)처갓집양념치킨



박정흠 다이아몬드엔젤
(주)수성익숲



박준곤 엔젤
(재)송곡문화장학재단



나재승 엔젤
(주)더모나코그룹



노기원 다이아몬드엔젤
(주)태왕인앤씨



노재관 엔젤
대구청원경찰노동조합



노재현 엔젤
동아시아문화센터



박준규 엔젤
(주)이노베이션



박지윤 엔젤
몽스



박철웅 엔젤
대구광역시축구협회



박해동 엔젤
강북요양병원



달서구축구협회 단체엔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 단체엔젤



문현훈 엔젤
(주)디와이덴탈스튜디오



박경우 엔젤
(주)현창건설



박혜영 엔젤



반용석 엔젤
반치과



방원주 엔젤
(주)포향융합티앤아이



배태관 엔젤
백산카드(주)



변창훈 엔젤
대구한의대학교



변화곤 엔젤
삼화건설(주)



서동국 엔젤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서정원 엔젤
(주)대선



윤창섭 엔젤
(주)플든비



이갑열 엔젤
(주)상일종합관리



이광해 엔젤
아사다라 한우셀프센터



이기식 엔젤
(주)현대스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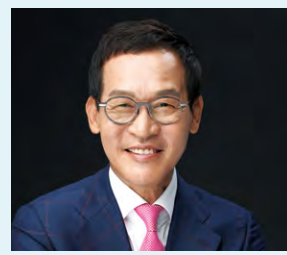
석한수 엔젤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성석훈 엔젤
(주)명덕건설



성순화 엔젤
(주)피플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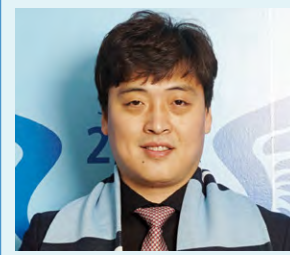
성점화 다이아몬드엔젤
(주)뉴프라임



이동환 엔젤
(주)폴토래



이병락 엔젤
경북대병원



이병우 엔젤
(주)더모나코그룹



이상득 엔젤
태진테크



손대권 엔젤
대구은행 반야월지점(센터)



손수완 엔젤
(주)수경



송준호 엔젤
한국PIM(주)



신승호 엔젤
(주)선서오메가



이상완 엔젤
금오상조의전



이성구 엔젤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승용 엔젤
(주)동원약품



이승현 엔젤
(주)동서개발



신용범 엔젤
(주)한미산업



심인철 엔젤
(주)동명테크원



양종호 엔젤
현대자동차 북대구지점



엄달현 엔젤
(주)대창엠코



이은호 엔젤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재식 엔젤
(주)아이텔



이재철 엔젤
DGB대구은행



이재표 엔젤
(주)제이에프



엄재국 엔젤
(주)포맨



엄태건 엔젤
(주)태준메디칼



우주택 엔젤
(주)명산



윤중현 엔젤
대구수성문화원



이재하 다이아몬드엔젤
삼보모터스(주)



이재호 엔젤
한경회계법인



이정훈 엔젤
(주)부성세라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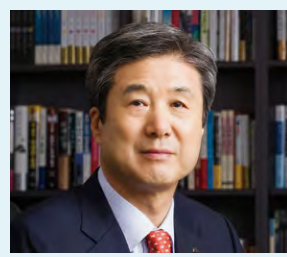
이종우 엔젤
신흥산기



이중락 엔젤



이창환 엔젤
(주)토담건축사사무소



이충곤 다이아몬드엔젤
SL(주)



이칠모, 박춘선 부부엔젤
선미(주)



정영준 엔젤
(주)다원아이디



정용화 엔젤
(주)대서케미칼



정재석 엔젤
(주)탐메디케어



정재호 엔젤
초록돌코리아(주)



이태현 엔젤
법무법인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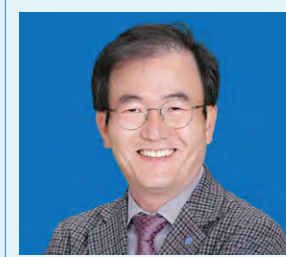
이태훈 엔젤
(주)애드애플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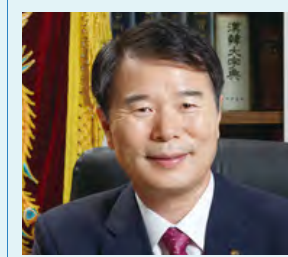
이현규 엔젤
브릴리언트커피



이형원 엔젤
일성침장



조두석 엔젤
(주)애드메이저



조만현 엔젤
(주)동우씨엠건설



조민성 엔젤
동영염직(주)



조병래 엔젤
디자인해밀



이호경, 이영순 부부엔젤



임익기 엔젤
(주)브라이트



장길화 엔젤
(주)세안정기



장철광 엔젤
(주)유일



조성수 엔젤
(주)에이엘테크



조승우 엔젤
이지컴퍼니(주)



조종수 다이아몬드엔젤
(주)서한



조현수 엔젤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



전성근 엔젤
SK반야월대리점



전용철 엔젤
(주)근우정공



전재욱 엔젤
(주)피플데이터



전진길 엔젤
(주)다원이앤씨



진덕수 다이아몬드엔젤
대흥코스트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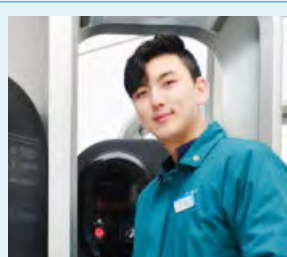
차상대 엔젤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주)



차순봉 엔젤
선우종합건설(주)



천은아 엔젤
정나눔(주)



정민교 엔젤
대영채비(주)



정소영 엔젤
(주)창성산업



정수빈 엔젤
과즙팡팡



정영만 엔젤
농업회사법인제이아그로(주)



최규락 엔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코리아(주)



최동욱 엔젤
(주)한라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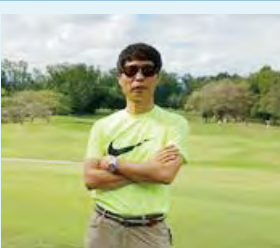


최성주 엔젤
(주)동진금속



최오원 엔젤
(주)이렌트카



 최원식 엔젤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익진 엔젤 (주)풍국면	 최인규 엔젤 (주)코리아 라이프라인	 최재호 엔젤 (주)골든크라운
 최종춘 엔젤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중해 엔젤 동양종합건설(주)	 최주희 엔젤 다지행 법률사무소	 최태원 엔젤 대구시풋살연맹
 최효욱 엔젤 (주)월성주택건설	 하영구 엔젤 명진푸드	 하윤수 엔젤 한국공조(주)	 하충호 엔젤 (주)플러스컴
 허정수 엔젤 명진약품	 현수환 다이아몬드엔젤 (주)동원약품	 현정규 엔젤 (주)영진기공	 홍기표 엔젤 (주)에이플랜
 황신우 엔젤 (주)신우씨엠건설	 황인혁 엔젤 인성데이터(주)	 황중길 엔젤 성신내장건설(주)	

DAEGU STRONG

대구FC엔젤클럽이 2021년 대구FC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대영에코건설(주) 이호경 회장



(주)태준메디칼 임태진 엔젤본부 상임부회장



세영회계법인 강병규 운영본부 상임부회장



(주)창성산업 정소영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



뉴스웨이 대구·경북
강정영 상임이사



히아브 하나
김상수 상임이사



(주)대영레데코
송원배 상임이사



(주)에드엔피알스미스
이태훈 상임이사



(주)다원아이디
정영준 상임이사



더원창호
김남호 운영이사



부경TS
김상덕 운영이사



세광종합상사
김종선 운영이사



스파이 룩 카케어
손현구 운영이사



와이디자인랩
안유학 운영이사



선미(주)
이칠모 운영이사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운영이사



디자인해밀
조병래 운영이사



이지컴퍼니(주)
조승우 운영이사



대구풋살연맹
최태원 운영이사

Diamond Angel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와 영원히!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진영환
삼익THK(주)



조종수
(주)서한



정태일
한국OSG(주)



진덕수
대흥코스텍(주)



이익재
(주)세신정밀



노기원
(주)태왕E&C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김동구
금복주



이충곤
SL그룹



백서재
(주)대영전자



권원강
교촌그룹



김상태
평화정공(주)



성점화
(주)뉴프라임



문경화
하얀얼굴예쁜곰매(주)로로피아니



박진현
(주)홀삭스



김옥열
(주)화신



이기환
거한건설(주)



박종규
(주)구구스 영남



현수환
(주)동원약품



박정흠
(주)수성익슈



엔젤클럽 자문위원

권오섭 청구푸드시스템	김성열 (주)아나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도재영 (주)웅진기업	박명수 명진금속	박병구 전 대구미술협회장	정영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회장	반용석 반치과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사	엄달현 대창엠코	이병훈 대구 스텐레스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천자우 (주)에슬린	하운수 한국공조	허홍만 명성골프	장병배 상인성당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정소영 (주)창성산업
-----------------	---------------	----------------

엔젤클럽 부회장

김완준 (주)JID	김용범 (주)에스알	김재홍 대호약품	김주성 광개토병원	박해대 미래테크(주)
배성혁 DIMF 집행위원장	서정원 (주)대선	신용범 한미산업	심인철 동명테크윈(주)	윤태경 바로본병원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승현 (주)동서개발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황종길 성신내장건설	

엔젤클럽
2021
신입회원

엔젤클럽 2021 신입회원	 김달호 엔젤 동광건설(주)	 김동휘 엔젤 굿네이버스	 김연수 엔젤 대구광역시축구협회
 김종태 엔젤 (주)제이제이건설	 김준목 엔젤 신정산업	 김지만 엔젤 대구광역시축구협회	 노재관 엔젤 대구청원경찰노동조합
 류창현 엔젤 (주)아프리카TV	 박동선 엔젤 현대개발	 박지윤 엔젤 몽스	 박철웅 엔젤 대구광역시축구협회
 배용상 엔젤 고광산업(주)	 서태호 엔젤 한성특수금속열처리	 이재식 엔젤 (주)아이텔	 이주안 엔젤
 이현규 엔젤 브릴리언트커피	 장정걸 엔젤 (주)카리스조명	 정수빈 엔젤 과즙광광	 정혜성 엔젤 한국전통채식화가
 정호용 엔젤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차상대 엔젤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천은아 엔젤 정나눔(주)	 황신우 엔젤 (주)신우씨엠건설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강민정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강병호	(주)신경일염직
강삼중	(주)에이치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강신일	대영리츠건설(주)
강윤석	(주)조안
강은주	한국일보
강의원	(주)일신건설엔지니어링
강일규	대서산업(주)
강일만	(주)세신엔지니어링
강정숙	테라앤수(주)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강종구	현대코퍼레이션(주)
강준기	(주)포머스
강철원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강태중	(주)한도엔지니어링
강해구	(주)경민테크
강환수	(주)덕산코트랜
고경집	
고민환	(주)상산건설
고삼규	보광병원
공영우	동성건재판매(주)
공윤욱	선진회계법인
공인욱	(주)백향에스엔피
공제영	(주)신성건설
곽기철	지우씨앤디
곽덕섭	(주)태명개발
곽동호	곽치과병원
곽재훈	운경재단
곽준성	삼성전자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구건우	PR네트웍스
구명임	(주)크린포시스템
구본탁	스마일약국
권 광	행복을 심는 치과
권병규	(주)화인산업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권상현	흥천사

성명	회사명
권석원	동진건설(주)
권성숙	바로연 대구지사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권연숙	
권영갑	(주)EMS
권오길	한성건설주식회사
권오복	(주)진명아이앤씨
권오상	권오상 법률사무소
권오상	(주)대광솔라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권오순	(주)디에스시스템
권오중	(주)대유기전공사
권오춘	(주)아름다운건설
권일경	(주)위드
권장대	(주)세화정공
권재원	(주)아우노
권주택	(주)갑산전기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권태경	태형기공
권혁기	(주)산동개발
권혁준	요셉성형외과의원
권호겸	(주)풍림
금영일	(주)고위드
김갑태	(주)아름
김강수	푸르덴셜생명
김경록	신도대구사무기
김경식	대곡자동차매매상사
김경태	리더스금융판매(주)
김고용	(주)명중스틸
김광덕	명진BS치과
김광배	대영에코건설(주)
김광수	(주)한맥창호
김국경	(주)세영디앤씨
김규일	(주)세원이엔지
김규정	삼성생명
김규혁	(주)포위즈시스템
김기섭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
김기완	
김기현	(주)기남금속
김길생	(주)동화주택

성명	회사명
김남호	더원창호
김니나	세영회계법인
김달호	동광건설(주)
김대경	
김대엽	(주)대영일루션
김대현	롯데 갤러리움 웨딩홀 앤 뷔페
김대훈	금탑한의원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김동국	DK글로벌코리아
김동규	(주)범서
김동연	우성디엔에이
김동용	
김동우	월드퍼스트
김동읍	조광포장종합
김동재	골마켓 대구점
김동휘	굿네이버스
김만휘	(주)뉴욕바닷가재
김말분	
김명수	(주)대남건설
김명용	(주)명성
김명일	제이엔엠 파사드
김명준	올플디앤씨
김목진	대전지방검찰청
김미숙	주원
김민태	동화주택
김범일	전 대구광역시청
김범헌	(주)한라이앤씨
김병오	필즈학원
김보성	(주)가온메디칼
김상길	(주)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
김상덕	부경TS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상수	히아브하나(주)
김상완	(주)한백종합기술공사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김상원	부호체어원(주)
김상호	(주)내일건설
김상훈	모던테크
김 석	(주)삼덕아스콘
김석호	한도식품(주)

성명	회사명
김성곤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김성관	(주)이슬나라
김성덕	소프트코리아
김성렬	(주)대성건업
김성열	(주)아나, 아나식품
김성욱	유도리
김성은	(주)다무산업개발
김성준	(주)지엔비모터스
김성호	(주)오상인터네셔널
김성호	성산종합건설(주)
김세중	천궁산업개발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턴트
김수현	대성건설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김소준	삼성생명COT
김승근	대구일보
김승우	KS상사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승필	삼성프린팅솔루션
김시보	백두산업
김애경	
김양우	(주)티앤지코리아
김연수	대구광역시축구협회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김영식	영진전공
김영식	굿락코리아
김영엽	지디종합건설(주)
김영주	(주)경북합판
김영준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김영택	일월건업
김영화	영화
김오동	명신종합건설(주)
김완준	(주)제이아이지
김용규	(주)창녕참우축산
김용범	(주)에스알
김용봉	(주)와이쓰리
김용식	(주)청맥산업

성명	회사명
김용운	(주)태하시스템창호
김용찬	(주)보광건설
김우일	(주)김샘교육
김원수	세무사 김원수 사무소
김원은	우경정보기술(주)
김익수	(주)화산종합건축개발
김재범	선진회계법인
김재용	(주)한국알파시스템
김재우	대양정밀
김재울	(주)영림INT
김재필	(주)주안디앤씨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김재홍	대호약품
김재환	더 김스타에프앤씨
김정달	현대동구서비스
김정미	멀티애드
김정수	경북대학교병원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김정철	경북대모발이식연구센터
김정희	김정희 건강피부관리실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김종원	금아의수족연구소
김종철	신흥버스(주)
김종태	(주)제이제이건설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김종호	(주)케이원
김종희	김종희 플로라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주현	(주)신안피피
김주환	경안플랜트, 경안솔라
김준목	신정산업
김준현	지에이코리아
김준현	세무법인 대명
김준현	가람건축사사무소
김중곤	인슈미디어그룹
김지관	(주)그란하니컴
김지만	대구광역시축구협회
김지미	(주)시마
김진기	영문산업건설



성명	회사명
김진성	푸르덴셜생명
김진수	엔에이골프(주)
김진수	(주)천우
김진엽	송산엘앤씨
김진태	팔공인터내셔널(주)
김진홍	대구우편집중국
김창희	
김충환	대구공고총동창회
김치호	(주)도영전설
김태건	골프원
김태균	(주)에디커뮤니케이션즈
김태길	피앤에이
김태수	대구자동차정비조합
김태호	공간포유
김태훈	(주)태경건설
김판권	(주)명산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주)
김해용	인덕영공(주)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김현철	에인에이(주)
김형동	대구시설공단
김형식	(주)동인전력
김형찬	울트라메탈
김호용	(주)건강누리
김홍근	건축사사무소 ADF
김홍식	TBC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김희찬	PEGDYCCO
나경성	엘리바덴 온천
나경윤	남부스타코
나재승	(주)더모나코그룹
남경원	(주)경원덴탈
남규동	디에이치지(주)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남재현	(주)러버원
남호영	(주)청운이앤지
노규영	(주)명일품
노병수	영남일보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성명	회사명
노재관	대구청원경찰노동조합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노주호	(주)대성아이지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노혜영	
농협두류은행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농협손해보험 대구지역총국	
달서구축구협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의회사회	
대구시민축구단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도문경	
도원호	해성정공
도윤수	파사디골프
도재영	(주)웅진기업
류광열	(주)원재산업
류영애	류영애세무회계사무소
류창현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류효충	신라산부인과
류 훈	(주)중앙세라믹스
문길남	(주)신세계건설
문순홍	찰스크라운코리아
문종혁	(주)동화건설
문준기	대경맥주(주)
문현훈	(주)디아와이덴탈스튜디오
문홍국	뉴부림고속관광(주)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민춘홍	(주)한국파이프
박경국	(주)성우아이지건설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박경우	(주)현창건설
박경진	(주)해나씨앤디
박경환	변호사 박경환 법률사무소
박관식	명진BS치과
박금화	서라벌대학교

성명	회사명
박기양	
박기원	아트건업
박기자	(주)무영
박길상	남북의료기상사
박대진	(주)리체바이오
박동규	한국디자인 모형(주)
박동선	현대개발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박동천	박국투어
박두천	경북대병원
박두한	오르다승무원학원
박래석	(자)삼우전자통신
박명규	(주)우진설비
박명수	(주)명진금속
박민천	(주)다온PLUS
박배창	(주)청도샘물
박병구	전 대구미술협회장
박병수	(주)동일스테인레스
박병욱	(주)달인식품
박병준	HC보광
박상열	박상열세무회계사무소
박석현	티비씨
박성묵	대광문화인쇄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욱	(주)삼승BNC
박성진	(주)꿈그린
박성호	금강운수(주)
박성호	
박성희	(주)AK메디
박소민	디자인그린
박순하	(주)코너스톤 자산운용
박승현	
박승환	(주)처갓집양념치킨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박원진	가인건설
박윤경	케이케이(주)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박익진	엔젤클럽홍보작가
박인호	(주)삼영이앤티
박재관	

성명	회사명
박재범	
박재현	(주)신우씨엠디
박정민	(주)칸여행사
박정수	중원전력주식회사
박종철	(주)우일건설
박종호	삼정종합폐차장(주)
박종화	(주)세보종합건설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박준곤	(재)송곡문화장학재단
박준규	(주)이노베이션
박준섭	변호사 박준섭법률사무소
박중희	TS스틸
박지윤	몽스
박 진	진보상사
박진숙	동일가구
박진우	(주)효성종합건설
박진창	대구시민축구단
박진향	(주)어번라이팅
박진환	유에이디
박찬력	(주)경북프린팅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박창훈	선경산업
박철웅	대구광역시축구협회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박춘선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박춘영	인터볼고CC
박태범	삼성생명보험
박태영	(주)케이아이티
박태정	(주)주원조경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박한상	KBI메탈(주)
박한석	팔공 컨트리클럽
박해대	미래테크(주)
박해동	강북요양병원
박현경	
박혜영	
박홍철	(주)신흥메탈
박홍식	(주)NS디자인
박희진	은성복어

성명	회사명
반용석	반치과
반정욱	미르건축(주)
방우정	리더스
방원주	(주)포항융합티앤아이
배경미	
배문구	승창침장
배상원	상원종합식품, 오대양식품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배성호	(주)성훈건축
배성희	고려피아노악기사
배용상	고광산업(주)
배인규	(주)한남라이팅
배인호	성호건설(주)
배장수	진명전력(주)
배종길	메디테크뉴스
배종찬	기성광고
배주락	(주) 해성오피스탑
배태관	백산자카드(주)
배효삼	(주)달구벌석건
백건호	경동BK
백경애	덕영치과기공소
백덕열	지오종합건설(주)
백무연	(주)뷰티코하트, 비아이티살롱
백순정	내추럴프러스
백승한	홍림곱창
백운규	(주)우림종합엔지니어링
백을수	(주)국제경호센터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변화곤	삼화건설(주)
서기수	즐거운세상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서대구JC특우회	
서동국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서상인	(주)NCT
서상환	현대개발
서순옥	
서영규	이노치과
서영득	색동가방
서정우	신성기업

성명	회사명
서정욱	(주)MSC
서정원	(주)대선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서찬곤	(주)이하안바다
서찬교	(주)대원전기
서철현	대구대학교
서태일	(주)에스티아이
서태현	(주)산동개발
서태호	한성특수금속열처리
서형석	투썸플레이스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선명한	(주)썬이피에스
성경환	(주)성경종합건설
성달표	(주)현대통상
성병철	디자인JSP
성부영	정일건설(주)
성석훈	(주)명덕건설
성수환	신영남산업(주)
성순화	피플라이프(주)
성정용	
손대권	대구은행 반야월지점(센터)
손동현	동현케이블
손상명	(주)신아개발
손상주	
손성태	(주)성진포머
손수완	(주)수경
손영훈	(주)성도팩
손원배	태명약업사 태명헬스케어
손인택	(주)서한
손지영	(주)두손
손현구	스파이 록 카케어
송국영	(주)태왕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송원배	(주)대영레데코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사
송준호	한국PIM(주)
송진오	(주)아이에스메이드
송채은	

성명	회사명
송춘희	(주)대경CM
신경우	부창솔래(주)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신기영	ARSTOMA
신동화	(주)차오른
신승호	(주)선서오메가
신연화	밸런스워킹
신용범	(주)한미산업
신정원	(주)한국센서 IT여성기업인회
신정현	TGF골프
신철균	다모건축사사무소
신호철	(주)플러스메드
신희득	(주)용성건설중기
신희영	보람회계법인
심건희	(주)천지재건
심왕국	대윤포장
심인철	동명테크원(주)
안상영	(주)광진종합건설
안승민	(주)상봉종합건설
안용모	경일대학교
안유학	와이디디자인랩
안종수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양대석	(주)악령시사람들
양승혁	인문사
양종호	현대자동차
엄관식	엄관식수학교습소
엄달현	(주)대창엠코
엄재국	(주)포맨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여상훈	법무법인(유한)클라스
여인찬	(주)수안
영남대학교 의료원	
예영숙	삼성생명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오승호	에스유산업건설(주)
오인식	(주)신정기공
오재완	(주)한국키네티코엔지니어링
오진섭	세무사 오진섭사무소
우경호	한국팜비오



성명	회사명
우덕구	(주)진성물류
이상현	더블유병원
우성진	(주)메가젠임플란트
우승수	
우영제	(주)한영
우종곤	(주)영인이앤씨
우주택	(주)명산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유병완	엔젤클럽홍보작가
유상석	금복홀딩스
유효정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윤귀자	삼성생명
윤남수	(주)아석전기
윤덕근	침산올바른통증의학과의원
윤민환	씨엠케이푸드
윤영수	(주)우정건축자재
윤종현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윤주석	주순개발(주)
윤창섭	(주)골든비
윤철식	(주)주성종합건설
윤태경	바로본병원
윤형돈	미래에셋대우(주)
윤희영	디자인디오
의사회축구단	
이갑열	(주)상일종합관리-SL산업개발
이강하	(주)아스코
이경곤	유성기초
이경숙	(주)미식주
이경애	농협은행 대구성동지점
이경호	(주)한길산업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경호	대구광역시축구협회
이관형	대원상사
이광해	아사다라 한우셀프센터
이기식	(주)현대스텐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이대형	세계실업(주)
이덕록	(주)서보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성명	회사명
이돈관	(주)우수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동관	매일신문
이동명	자비스
이동성	(주)홍맥건축디자인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동원	변호사이동원법률사무소
이동원	현대자동차 앞산지점
이동진	(주)선진라이프
이동현	우행주건축(주)
이동환	(주)폴도래
이동희	광덕전력
이두원	(주)DRK
이명옥	(주)이원
이명현	(주)동광명품도어
이무철	금융기계(주)
이문열	(주)대신공영
이민화	백강
이병락	경북대병원 시설과
이병우	HOTEL여기어때 대구역점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이복희	(주)광덕전력
이상길	
이상득	태진테크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상열	(주)씨유크퍼니
이상완	금오상조의원
이상택	매일신문사
이상호	비보건설
이상훈	(주)화성이앤씨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선찬	진성테크
이성구	마리아나임클리닉
이성동	(주)금보종합건설
이성배	(주)에가
이성열	SL
이성욱	(주)부국철강
이성욱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태	(주)풋살스포츠
이수동	(주)에스엠종합주류

성명	회사명
이승용	(주)동원약품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영순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이영웅	(주)디자인로움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이영호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이용재	석문전기(주)
이우삼	(주)마스윈
이원영	평산개발건설
이원우	(주)한은이앤씨
이원재	(주)핑거스냅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이윤희	한국알카리수(주) 수성구 대리점
이은준	SJ홀딩스
이은준	광개토병원
이은호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응상	(주)한승계기
이응찬	(주)건화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재식	(주)아이델
이재익	가람테크
이재철	DGB대구은행
이재표	(주)제이에프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이재훈	푸드원
이정미	아사무역
이정훈	(주)TPC
이정훈	(주)부성세라믹스
이종경	(주)태왕
이종복	삼해인더스트리(주)
이종우	신흥산기
이종운	덕재건설(주)
이종원	(주)코그
이종현	(주)퓨리치
이주안	
이준철	태영전기
이준호	호신섬유(주)

성명	회사명
이종근	행정동우회
이종락	대구영화협회
이종원	원호금속(주)
이중호	(주)세신정밀
이중호	(주)대영알앤티
이지환	VIP응급환자이송센터
이진백	지엔비오토모빌(주)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이진수	(주)한경에이앤씨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이창환	(주)토담건축사사무소
이천기	국제자산신탁(주)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총경	JUWEL J
이치우	대구음악협회
이철모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이태현	법무법인마음
이태훈	(주)에드앤피알스미스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이한일	드림병원
이해봉	(주)봄커뮤니케이션즈
이 현	(주)두강, 코디박
이현규	브릴리언트커피
이현득	변호사이현득법률사무소
이형선	지성건설(주)
이형원	(주)일성침장
이호경	월드산업(주)
이호경	대영예교건설(주)
이화선	화선(주)
이희도	아진주철
이희준	SGI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이희재	이희재건축사사무소
인재현	뽕하노이 삼덕점
임광호	광명부부치과의원
임명섭	(주)영남바른상조
임상택	위드고
임상훈	엔티엘의료재단
임익기	(주)브라이트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임재형	원규
임화자	예쁜유치원

성명	회사명
임흥규	대평산업개발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장길화	(주)세안정기
장동렬	경산건업(주)
장민우	대영금속(주)
장병배	상인성당
장선윤	아쿠스코리아
장상태	대한개발
장세주	(주)한국포장산업
장세철	(주)고려건설
장수미	
장안중	석문전기(주)
장연배	보광테크
장용호	(주)나라산업
장우영	대구보건대학교
장원규	(주)화성
장원용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장윤제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장익현	장익현법률사무소
장재철	
장재화	(주)창녕참우축산
장정길	(주)카리스조명
장정숙	자원환경
장정호	법률사무소 장
장철광	(주)유일
장홍석	대원기계공업(주)
전병규	일신프라스틱(주)
전성근	SK반야월대리점
전성렬	동양OA
전성봉	오케이포인트마트
전용수	(주)신동아전세관광
전용철	(주)근우정공
전재욱	(주)파플데이터
전중달	제이디건설(주)
전진길	(주)다원이앤씨
전해영	(주)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전형노	메가미래라이프
정경용	민초심
정균섭	(주)대영산업
정규익	가구365.COM

성명	회사명
정모경	정원자카텍
정민교	대영채비(주)
정병창	세종건설
정병환	(주)삼보이데아
정봉길	가조종합개발주식회사
정성인	GJ에셋
정소영	(주)창성산업
정수빈	과즙팡팡
정에스터	갤러리제이원
정연일	한패밀리병원
정연환	삼진이앤피
정영만	농업회사법인제이아그로(주)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정용화	1997 빠리바닷가재
정용화	(주)대서케미칼
정원호	삼화봉재
정일균	(주)다운시스템
정장화	주성안전기
정재석	(주)탑메디케어
정재현	세영회계법인
정재호	초록돌코리아(주)
정정국	(주)지엠이앤씨
정찬두	세기리텍(주)
정태경	(주)대성건업
정태균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정택수	매일애드(주)
정하용	동진특수인쇄
정현수	(주)보극이앤씨
정형우	(주)아이디어하이
정혜성	한국전통채색 화가
정호균	메디피아
정호용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정호윤	건축사사무소청연
조두석	(주)에드메이저
조득환	(주)금강알텍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조민규	
조민성	동영염직(주)



성명	회사명
조병래	디자인해밀
조봉준	(주)동일
조선웅	유마스템메디컬그룹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조성수	(주)에이엘테크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조영래	(주)원형디앤씨
조용호	(주)어펙시스템
조장형	(주)나라피움
조정연	(주)대청디앤씨
조정욱	두손건축
조준근	대구학원안전공제회
조준호	태일인슈(주)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조태근	리스펙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조혁준	스카이 아카데미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
조환열	재현엘앤씨
주기정	필 메디칼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주진현	하늘나리
지용호	(주)대한공조
진혜윤	(주)보강디엠에스
차상대	브리즈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주)
차성범	(주)삼인프라임
차순봉	선우종합건설(주)
차영규	(주)민영산업
차영진	제일کم
차인석	(주)대성엔팩스
차훈일	(주)샘초롱농업회사법인
천순화	퀵무역
천용구	(주)가우
천은아	정나눔(주)
천자우	(주)에슬린
천종열	(주)윤성건설
천해성	(주)하림조경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최경수	(주)삼익테크
최고현	MBC
최규락	동양이엘

성명	회사명
최길영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최동욱	(주)한라공영
최만수	인터불고CC
최명수	오성주류판매(주)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최미연	대구은행
최서우	(주)뉴니케
최선주	(주)연호개발
최성종	통문어전문점(통문어가)
최성주	(주)동진금속
최양원	(주)이루케미칼
최영철	(주)삼코
최오원	(주)이렌트카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최원식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윤연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최은석	참조은병원
최익진	(주)풍국면
최인규	(주)코리아 라이프라인
최인철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최일식	
최재호	(주)골든크라운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최종택	세무사최종택사무소
최종해	동양종합건설(주)
최주열	화원참사랑요양병원
최주희	다지행 법률사무소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최창배	신항도시개발(주)
최태원	대구시풋살연맹
최한교	(주)디스이즈모든
최효욱	(주)월성주택건설
추재엽	대영에코건설(주)
추화엽	대성크린텍
코바체프	

성명	회사명
표병관	(주)지에스탑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하승우	하승우 내과
하영구	명진푸드
하윤수	한국공조(주)
하제연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충호	(주)플러스컴
하호만	(주)도원주택개발
한도준	삼익키리우(주)
한동근	의료법인해성병원
한동엽	방천시장가족족발
한승훈	(주)유한상사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허성규	우진시스템(주)
허원희	HK GOLF
허정수	명진약품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셋
허진걸	(주)영산전기
허진구	(주)일성건설
허흥만	(주)명성골프
현용환	(주)유성철강
현정규	(주)영진기공
홍기표	(주)에이플랜
홍민수	(주)우람
홍영호	(주)바른로지스
홍장현	(주)엔와이엔
홍효정	
황신우	(주)신우씨엠건설
황우곤	(주)피아이에이인프라
황인혁	인성데이타(주)
황재민	(주)우신산업
황종길	성신내장건설(주)
황현호	인터테크(주)
황현호	변호사황현호법률사무소

엔시오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강동한	
강민정	
강예동	
강예찬	
강준식	
강지은	
강호영	(주)기안전기통신
고병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영훈	
고재근	
공남기	
구경태	(주)하현주온열건강과학
구본도	렉서스 대구
구본일	파워트윈스
권구호	대한민국 해군
권달수	브라이트
권미향	
권순철	
권영경	MYZ무역
권지웅	
권진희	
금정빈	
기영노	
김결이	스피치킴교육
김광배	(주)에드워드커뮤니케이션즈
김광수	
김규석	
김근영	
김기나	브이성형외과
김기주	푸르덴셜생명
김나연	레인보우스튜디오
김남수	
김노영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대구사무소
김대환	
김도한	
김도희	편애편
김동규	산도테크

성명	회사명
김동수	비락
김동희	동산의료원
김두연	대한메탈
김두현	
김령경	이지컴퍼니(주)
김만홍	
김명준	
김민기	
김민서	조아전자(주)
김민성	
김보민	
김상겸	
김상길	서구청
김상도	(주)셀띠꼬
김상일	개인사업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하오커(메세나폴리스점)
김성우	미스터덕
김성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김성호	
김시현	신흥
김영경	다이나믹엔젤스
김영민	
김영민	화영테크
김영삼	굿락코리아
김영수	대법원
김영순	이산조명
김영욱	굿락코리아
김영일	아베스정보통신
김영호	(주)이튜
김용하	
김용한	주원유통
김윤섭	캠핑리버
김은설	
김은숙	서울떡집
김은주	(주)JID

성명	회사명
김은지	다이나믹엔젤스
김재현	대영에코건설(주)
김재환	(주)한일통신
김정민	매천중학교
김정수	
김정식	
김정식	
김정연	새평화약국
김정원	고려 컨설턴트
김정은	
김종도	대구시 서구청
김주연	
김준현	
김준희	
김진성	
김진희	금복주
김창귀	
김창섭	(주)나래시스템
김창한	
김채섭	매그나칩반도체
김충기	
김태우	익도관세법인
김태정	온그린골프클럽
김태호	(주)에드스미스
김표근	효성메디칼
김한우	EZ컴퍼니
김현민	DB손해보험
김현범	VIP축구단
김현승	월앤비전
김현아	
김현용	성진포머
김현준	리서치코리아
김현호	미래혁신정형외과
김형훈	(주)하츠
김혜란	설대학원
김혜민	반디유치원
김혜정	한국밴딩



성명	회사명
김호근	아진상사
김홍복	(주)가람
김효정	
나광무	엘리바덴
남기용	
남정국	
남희건	현대자동차
노의찬	SL
노태열	SL tech
노태호	
도경록	(주)창원청과시장
도기만	삼성생명 대구법인지역단
도영경	
도윤록	주식회사 신광
류경남	(주)런시스템
류재훈	대구소방
맹경환	SL tech
문근웅	
문병일	서대구스카이
문신혜	
문요한	
문윤광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문재근	한국아쿠르트
문재성	
문재웅	(주)시너지어스
문재호	(주)대산
문제성	아스텍(주)
민제홍	
박건희	조아전자(주)
박경식	이프비즈
박경환	
박광범	대영리츠건설(주)
박규태	투페이스옵티칼
박도필	농협은행 주식회사
박미성	
박병준	
박병진	(주)다운산업

성명	회사명
박병호	기업은행
박상우	쌍박company
박석진	
박성규	VIP축구단
박성택	한국퓨얼셀
박수빈	
박수용	자영업
박수정	
박연순	오바마스피치학원
박용민	
박은진	세영회계법인
박재욱	
박정현	대구도시공사
박종극	성우실업
박종률	대성에너지(주)
박종수	수메디칼
박종욱	최상익 류안나법무사 사무실
박종필	대호약품
박준범	(주)신영엘에스
박중철	VIP축구단
박지성	
박진수	
박진우	제이디아이테크
박창식	VIP축구단
박한얼	
박현근	브라이트
박현정	(주)JID
박희곤	
배병근	현대자동차
배순형	VIP축구단
배창형	양광테크
백건호	영남대학교
백성훈	변호사 민총기. 법무사 김일동 사무소
백진수	
변상범	(주)다현
서승열	VIP축구단
서은혜	에이케이테크대구지사

성명	회사명
서장원	(주)전진이엔지
서정순	
서차만	디자인 뎀피스
서창덕	엠엠티
서창덕	대구시청
서형오	
성 웅	히로텔
소재원	신애상사(주)
손동우	
손지현	더윌
손판길	
손홍모	
송가연	
송경규	에이스오일
송다영	
송병호	
송영빈	
송외숙	
송정화	
송지환	원진산업
신광모	
신동완	한국델파주식회사
신세영	
신은경	
신인철	신안통상
신재민	LG전자
신진영	
신형섭	푸르덴셜생명
심남호	월덱스
심은정	
안용성	SL주식회사
안인호	
안재선	
양다혜	
양승원	기프트리
양지훈	
엄태연	

성명	회사명
염대호	주은인터내셔널
오경희	
오범석	경상공고
오세학	JM테크
오승준	
오영식	
오정아	
오진석	구지중학교
오해윤	관세법인 드림
옥진호	대륙 기초건설
우순월	
우창윤	도담한의원
유경금	
유상재	티에이케이정보시스템
유왕석	대구FC 서포터 클럽 구름
유정연	
유해경	
유현재	
윤명수	
윤보람	서비스탑
윤선훤	
윤옥제	
윤재현	동원중
윤찬영	
윤천수	VIP축구단
윤혁준	바젤
은준기	법무법인 창비
이강문	
이건우	
이경호	
이규성	
이규현	웅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이기택	
이동건	SK건설
이동명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이동민	(주)다운산업
이동욱	동아대학교

성명	회사명
이동호	동호디자인
이명희	
이미경	
이미애	명일품(주)
이병현	폭스바겐대구전시장
이상기	모텔 붐
이상대	
이상진	삼성화재
이상혁	명가
이상훈	
이상희	
이석민	EZ컴퍼니(주)
이선미	
이성길	개인
이성도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이성백	VIP축구단
이성진	조아전자(주)
이성진	
이소정	
이수형	
이수희	
이승훈	
이시우	
이연우	
이영빈	팔봉
이영주	루시드
이영철	
이영호	
이옥희	
이용덕	대구보건대학교
이원욱	
이윤덕	우주교통
이인영	서민숏볼구이
이인혁	
이정엽	다이텍연구원
이정은	
이종길	금성농협 가음지점

성명	회사명
이종훈	가창분한의원
이주용	북성신용협동조합
이주호	기아자동차 경산지점
이준훈	
이준희	
이지연	힐드로사이CC
이지영	
이진형	
이창환	가야축산
이해동	
이현식	(주)에스시메탈
이현호	
이효진	대부자동차번호판
이희숙	
이희정	
임경숙	대구대학교
임상한	
임현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임희주	드림병원
장규영	두산공작기계
장문수	
장연주	
장욱진	(주)화랑고무
장원석	
장재혁	대구카지노
장지은	
장진학	
장현찬	ABIMAN ENG
전강욱	조아전자 주식회사
전상범	
전석진	삼성애드
전성호	
전우찬	(주)해밀
전은실	
전은찬	
전재현	
전해신	VIP축구단



성명	회사명
정구환	
정동석	
정동호	
정미경	신세계백화점
정서경	
정성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승호	
정영록	북현중학교
정용태	구미고등학교
정운주	한국항공
정원호	
정윤민	
정은상	
정재관	
정재민	브이성형외과
정재한	
정종율	대구시청
정현욱	
정현주	태경레이저
정형식	
정휴채	공덕설비주식회사
정희석	
정희원	동북보건지소
정희진	
제효순	(주)애드애피알스미스
조동진	VIP축구단
조민경	
조순제	KEIK
조영래	
조영석	
조영재	테라체
조윤재	라운오에이
조일현	경북대학교
조재용	동성산업
주명희	
주은혜	
주현우	M금융서비스

성명	회사명
지정인	
지현우	자영업
진성록	영남이공대학교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차대욱	네오테크
차재원	
차효준	씨앗과맘
채근석	부경상사
채명신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채수완	경일대
채종영	
채현미	
최기진	디에스피이엔지
최만석	신앙과 역사문제 연구소
최문규	대구북부소방서
최병천	진성테크
최석용	경창산업(주)
최성준	
최수영	
최영진	대구시청
최영찬	미성섬유
최용대	대진공업사
최우철	
최원식	경희한의원
최육사	(주)네오플
최의택	달서구축구협회
최해영	
최현수	
최혜윤	
최호일	법무부
최희윤	국민대학교총동문회
태해석	VIP축구단
하석희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재목	LIG넥스원
하종찬	아이씨로지스
하종훈	
하주홍	대구교도소

성명	회사명
한동애	시크릿
한동주	
한병준	태화디앤씨
한승욱	한국은행
한종건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한종성	GS리테일
한준희	
한진현	
허난영	(주)캔유여행사
허영욱	
현규익	대성인터내셔널
형연주	
홍성혁	아이디온한국협농
홍재범	곽병원
황기숙	
황덕현	
황득주	
황미하	노보노디스크제약
황성희	벤디스
황승준	삼삼종합건설
황유빈	

대구의 중심 광개토병원

GGT 광개토병원이 대구의 중심 반월당역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화상외과

중증화상 집중치료실
대구경북 화상치료를 위한 화상외과
(중증화상, 소아화상) 운영

GGT 클린 건강증진센터

초대형 소화기 내시경센터
100년 건강을 위한
클린 건강증진센터 운영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당역 13번 출구 바로 앞, 3초 역세권)
반월센트럴타워 B1, 1F, 2F, 3F, 5F, 7F, 11F, 12F, 14F, 17F
주차는 메트로 주차장이 편리합니다. (최대 2시간 무료)

접수 및 안내 **2F** **1577-7597**



Bareumi
Hotel Inter-Burgo DAEGU



VVINT
빈트

함께 숨 쉴 수 있는 기쁨,
빈트와 함께 합니다.

가습기의 표준을 바꾸다
빈트 자연가습기

우리집 공기에 안심을 더하다
빈트 공기청정기



자연가습기
VVINT
빈트

공기청정 가습기
VVINT
빈트

공기청정기
VVINT
빈트

60% OFF
PREMIUM PACKAGE

치맥하며 놀자 ~

₩688,000 → ₩269,000

이제, 호텔에서 놀자 PACKAGE

특 / 별 / 우 / 대 / 가 (2인기준) 패키지 상품은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PREMIUM PACKAGE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호텔조식(2인) + 사우나2인

+ 석식2인 (더뷔페 or 심비디움) + 프리미엄 치맥

더뷔페 (월-금), 심비디움 바닷가재 (주말 / 공휴일) 밤별소 아간포차, 치킨 & 생맥주 2잔 제공

객실예약
053) 602-7173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http://www.hotel-interburgo-daegu.com

대영전자주식회사
DAEYOUNG ELECTRONICS CO., LTD.

대영전자는 언제나 최고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제품문의 : 031-8065-5450 / 홈페이지 : www.vvint.co.kr

